

석사학위논문

MMTIC 성격유형과 교과별  
학업성취와의 관계 연구

지도교수 박 태 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김 남 규

1999년 8월

<국문초록>

## MMTIC 성격유형과 교과별 학업성취와의 관계 연구\*

김 남 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박 태 수

학생들에게는 타고난 선호경향이 있고, 각 교과에는 타 교과와는 다른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선호경향과 교과의 특성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 및 청소년 성격유형검사(MMTIC)에 따른 학생들의 성격유형과 교과별 학업성취간의 관계를 구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성격유형의 네 가지 선호경향(E-I, S-N, T-F, J-P)은 교과별(국어, 수학, 사회, 자연, 체육, 음악, 미술) 학업성취에서 차이가 나는가?

둘째, 성격유형의 네 가지 기능(ST, SF, NT, NF)은 교과별(국어, 수학, 사회, 자연, 체육, 음악, 미술) 학업성취에서 차이가 나는가?

셋째, 성격유형의 네 가지 기질(SP, SJ, NT, NF)은 교과별(국어, 수학, 사회, 자연, 체육, 음악, 미술) 학업성취에서 차이가 나는가?

위의 연구문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제주시에 있는 S초등학교 4학년 388명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아동의 성격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MMTIC 검사를 사용하였고, 교과별 학업성취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평가 결과를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는 네 가지 선호경향 중 명백한 선호성을 나타내지 않는 U밴드를 나타내는 아동을 포함시킨 전체 388명의 자료와 U밴드를 제외시킨 159명의 자료로 나누어 SPSS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검증,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다.

---

\* 본 논문은 1999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이상의 과정을 통해 얻은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격유형의 네 가지 선호경향(E-I, S-N, T-F, J-P)에 따라 교과별 학업성취를 살펴본 결과 E-I, S-N, T-F 선호경향에서는 U밴드를 포함했을 때와 제외했을 때 공통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교과는 없었다. 그렇지만 판단성향(J) 집단과 인식성향(P) 집단에서는 U밴드 포함했을 때는 국어, 수학, 사회, 자연, 음악, 미술 등 6개 교과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U밴드를 제외했을 때는 국어, 자연, 음악, 미술 등 4개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므로 교과별 학업성취는 성격유형의 네 가지 선호경향 중 J-P 선호경향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둘째, 성격유형의 네 가지 기능(ST, SF, NT, NF)에 따라 교과별 학업성취를 살펴본 결과 U밴드를 포함했을 때는 사회, 음악, 미술 등 3개 교과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U밴드를 제외했을 때는 음악, 미술 2개 교과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므로 네 가지 기능에 따라서 교과별 학업성취가 다르다.

셋째, 성격유형의 네 가지 기질(SP, SJ, NT, NF)에 따라 교과별 학업성취를 살펴본 결과 U밴드를 포함했을 때는 국어, 사회, 체육, 음악, 미술 등 5개 교과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U밴드를 제외했을 때는 국어, 미술 2개 교과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므로 네 가지 기질에 따라서 교과별 학업성취가 다르다.

종합적으로 MMTIC 성격유형에 따라 교과별 학업성취가 다르게 나타났다.

# 목 차

I.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와 가설 .....	3
II. 이론적 배경 .....	5
1. Jung의 성격유형론 .....	5
2. 어린이 및 청소년 성격유형 .....	7
3. 성격유형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	10
4. 교과별 특성과 MMTIC .....	19
III. 연구방법 .....	25
1. 연구대상 .....	25
2. 측정도구 .....	25
3. 자료처리 .....	26
IV. 결과 및 해석 .....	28
1. 기본 통계치 .....	28
2. 가설검증 .....	31
V. 요약 및 결론 .....	44
1. 요약 .....	44
2. 결론 .....	47
3. 제언 .....	47
참 고 문 헌 .....	49
Abstract .....	52
부 록 .....	55



## 표 목 차

〈표Ⅱ-1〉 16가지 성격유형 .....	9
〈표Ⅱ-2〉 각 기질 유형에 따른 학습자의 학습 양식 .....	16
〈표Ⅳ-1〉 U밴드를 포함한 지표별 선호 경향 .....	28
〈표Ⅳ-2〉 U밴드를 제외한 지표별 선호 경향 .....	29
〈표Ⅳ-3〉 성별 16가지 성격유형 분포도 .....	30
〈표Ⅳ-4〉 기능 및 기질별 분포도 .....	30
〈표Ⅳ-5〉 성별 교과 성적 평균 .....	31
〈표Ⅳ-6〉 E-I 지표에 따른 성적의 차이 검증(U밴드 포함) .....	32
〈표Ⅳ-7〉 E-I 지표에 따른 성적의 차이 검증(U밴드 제외) .....	32
〈표Ⅳ-8〉 S-N 지표에 따른 성적의 차이 검증(U밴드 포함) .....	33
〈표Ⅳ-9〉 S-N 지표에 따른 성적의 차이 검증(U밴드 제외) .....	34
〈표Ⅳ-10〉 T-F 지표에 따른 성적의 차이 검증(U밴드 포함) .....	35
〈표Ⅳ-11〉 T-F 지표에 따른 성적의 차이 검증(U밴드 제외) .....	35
〈표Ⅳ-12〉 J-P 지표에 따른 성적의 차이 검증(U밴드 포함) .....	36
〈표Ⅳ-13〉 J-P 지표에 따른 성적의 차이 검증(U밴드 제외) .....	37
〈표Ⅳ-14〉 기능유형에 따른 성적의 차이 검증(U밴드 포함) .....	39
〈표Ⅳ-15〉 기능유형에 따른 성적의 차이 검증(U밴드 제외) .....	40
〈표Ⅳ-16〉 기질유형에 따른 성적의 차이 검증(U밴드 포함) .....	41
〈표Ⅳ-17〉 기질유형에 따른 성적의 차이 검증(U밴드 제외) .....	42

## 그림 목차

〈그림Ⅱ-1〉 정신의 4기능 .....	6
〈그림Ⅱ-2〉 8가지 선호경향 .....	8
〈그림Ⅱ-3〉 인식기능과 판단기능에 의한 기능유형 .....	14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업 성취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환경적 변인, 수업변인, 학습자 변인이 있는데 (윤경희, 1985) 학습자 변인은 지적변인과 비지적 변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적변인으로는 지능, 창의력, 적성 등을 들 수 있고 비지적 변인으로는 학습자의 정의적 영역인 불안, 포부수준, 동기, 흥미, 태도, 성격 등을 들 수 있다. Bloom(1976)이 제시한 학교 학습 개념 모형에 의하면 인지적 투입 행동은 학업 성취의 50%까지 결정해주고, 정의적 출발 특성은 25%까지 결정해 준다고 하여, 학업성취에는 학습자의 정의적 영역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했다.

지금까지의 교육연구에서 학습자의 정의적 측면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개 동기, 불안, 태도, 환경, 자아개념 등을 중심으로 이러한 요인들의 학업성취와의 관계에 연구의 초점을 두는 경향으로 일관해 왔다.

인간의 성격을 한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은 독립적으로는 각각 의미를 가지나,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제한적이며, 인간의 실제적 기능으로서 중요한 역동성(Dynamic)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는 트라이앵글의 다른 두 면을 고려하지 않고 한 쪽의 기능만을 이해하려는 것과 같다(Golay, 1982). 이에 최근에는 성격의 전체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성격유형론의 입장에서 학업성취와의 관련성을 보고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Schurr & Ruble, 1986; Tobacyk, Hearn & Well, 1990; Lathey, 1991; 허정, 1991; 정경연, 1994; 송종건, 1994; 김혜영, 1996).

MMTIC(Murphy-Meisgeier Type Indicator for Children)은 Jung(1920)의 심리유형론에 그 이론적 바탕을 두고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에 대한 연구 결과를 참고로 하여 개발된 것으로써 외향성(Extraversion)과 내향성(Introversion), 감각(Sensing)과 직관(Intuition), 사고(Thinking)와 감정(Feeling), 판단(Judging)과 인식(Perceiving)이라는 4개의 양극지표로 구성되는데, 인간의 개인차는 4가지 지표의 방향 배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개인은 선천적으

로 외향성이나 내향성, 판단이나 인식의 태도를 지녔으며, 감각이나 직관, 사고나 감정과 같은 마음의 기능을 가졌다. 이러한 선호경향은 어린 시절부터 일생을 통해 발달과정을 거친다. Jung의 이론에 따르면 어린이의 성격발달이란 평생을 통하여 천천히 단계별로 성장해 가는 씨앗과 같다고 하였고, Myers는 바람직한 유형발달은 인생의 초년부터 시작되며 환경은 유형발달을 돕거나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여, 어린이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중요시하였다(Myers & McCaulley, 1985). Jung은 어린이들이 자신의 타고난 선호경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하였다. 선호경향의 발달은 그 타고난 잠재력의 개발과 관계가 있으며, 이것은 전인적 인간교육과 관계된다고 볼 수 있다(정경연, 1994).

학교 현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교과들은 각각의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각 교과별로 다양한 영역을 두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학생들의 흥미와 학업 성취가 달라지고 있다. 교과교육은 학생들에게 단순한 지식교육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인간교육이 되어야 한다. 학생들에게는 타고난 선호경향이 있고, 각 교과에는 타 교과와는 다른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선호경향과 교과의 특성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Jung의 이론을 근거로 MBTI를 개발해 낸 Myers(1985)는 학업성취는 학습의 결과이며, 성격유형에 따라 학업성취는 좌우된다고 하여 학업성취에 각 개인의 성격유형에 맞는 학습양식을 강조하였다(김정택·심혜숙, 1990). Tallmage와 Shearer(1969)의 연구에 의하면 학습자의 성격에 따라 비록 같은 교육장면일지라도 작용하는 개인의 속성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다른 학습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결론을 보인다.

학습 지도의 새로운 경향은 학급 성원 각자의 학습 능력과 개인차를 고려하여 주어진 교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학습의 개별화를 강조하고 있다(김호권, 1987). 근래에 들어 열린교육의 확산으로 개인의 차이를 어떻게 교육의 장에서 보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자료를 통한 교육방법 및 교육관리 체계는 급속히 신장되어가고 있고 갖가지 교육의 기술과 전략의 발달은 어른이나 어린이들에게 갖가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교육의 기술과 전략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의 개인차는 다양하며, 이러한 개인차를 변별해 주는 기술과 방법의 발달은 미흡한 형편이다. 그러므로 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과 능력을 발휘하여 학업성취를 높

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성격유형과 학업성취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Lathey(1991)는 중학생(6-8학년)을 대상으로, Fourqurean, Meisgeiet, Swank와 Hauston(1988)의 공동 연구, Schurr와 Ruble(1986)의 대학 신입생의 학업성취와 MBTI의 4가지 지표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허정(1991)의 우리 나라 인문계 고등학생의 성격유형 4가지 지표와 학업성취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정경연(1993)의 초등학생의 심리기능과 지능 및 학업성취 관계에 대한 연구, 송종건(1994)의 중학생의 성격유형과 학업성취에 대한 연구들은 전체적인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재고 있으며 성격유형에 따른 각 교과별 학업성취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형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 및 청소년 성격유형검사(MMTC)에 따른 학생들의 성격유형과 교과별 학업성취간의 관계를 구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연구문제와 가설

본 연구에서 아동의 성격유형과 교과별 학업성취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격유형의 네 가지 선호경향(E-I, S-N, T-F, J-P)은 교과별(국어, 수학, 사회, 자연, 체육, 음악, 미술) 학업성취에서 차이가 나는가?

둘째, 성격유형의 네 가지 기능(ST, SF, NT, NF)은 교과별(국어, 수학, 사회, 자연, 체육, 음악, 미술) 학업성취에서 차이가 나는가?

셋째, 성격유형의 네 가지 기질(SP, SJ, NT, NF)은 교과별(국어, 수학, 사회, 자연, 체육, 음악, 미술) 학업성취에서 차이가 나는가?

이상과 같은 연구문제를 구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성격유형의 네 가지 선호경향은 교과별 학업성취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외향성향(E)을 지닌 집단과 내향성향(I)을 지닌 집단간에는 교과별 학업성취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2. 감각성향(S)을 지닌 집단과 직관성향(N)을 지닌 집단간에는 교과별 학업 성취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3. 사고성향(T)을 지닌 집단과 감정성향(F)을 지닌 집단간에는 교과별 학업 성취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4. 판단성향(J)을 지닌 집단과 인식성향(P)을 지닌 집단간에는 교과별 학업성취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성격유형의 네 가지 기능(ST, SF, NT, NF)은 교과별 학업성취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 네 가지 기능에 따라 분류된 집단(ST, SF, NT, NF)간에는 교과별 학업성취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성격유형의 네 가지 기질(SP, SJ, NT, NF)은 교과별 학업성취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3-1. 네 가지 기질에 따라 분류된 집단(SP, SJ, NT, NF)간에는 교과별 학업성취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Ⅱ. 이론적 배경

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Jung의 성격유형론과 어린이 및 청소년 심리경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교과별 특성을 살펴본 후 성격유형과 학업성취를 알아보려고 한다.

### 1. Jung의 성격유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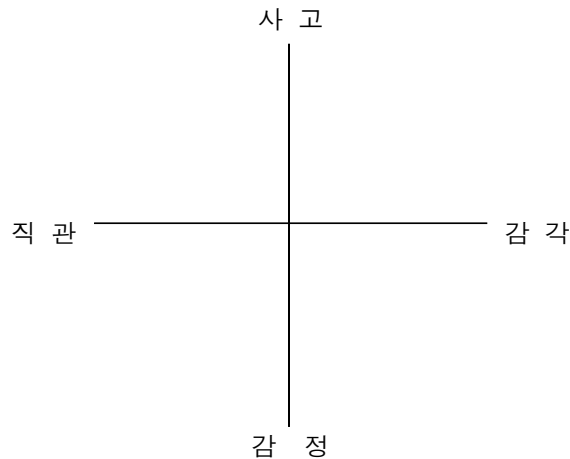
Jung은 정신과 의사로서 자신의 임상경험과 반대론자와의 갈등 속에서 인간은 같은 사물을 보아도 서로 다르게 보며, 이런 차이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런 인식과 판단의 개인적 차이를 그 사람의 성격유형이라고 표현했다.


인간의 성격 유형에 대한 관심은 이미 동서양의 고대로부터 있어 왔다. 고대 그리스 의사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의 4액(四液)에 바탕을 둔 네 가지 성격특징은 순수한 심리학적 유형을 말했기보다는 생물학적 분류에 속하는 것이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융의 심리학과 서로 통하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는 동양 고대의 역(易)의 思想을 들 수 있는데 즉, 太極이 兩儀를 낳고 兩儀는 陰陽剛柔의 四象을 낳고 四象에서는 八卦가 생기는 變換의 法則이 그것이다. 이것은 융이 경험적으로 파악한 外向, 內向, 의식, 무의식의 對極形成과 그 相互補完 또는 轉換의 원리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이부영, 1991).

인간의 개인차를 이해하려는 수많은 욕구에 힘입어, 융은 사람들을 깊이 관찰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그의 심리유형이론을 제시하였는데, 그의 이론은 의식의 구조와 각 기능의 유형과 그 무의식과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융의 심리학적 유형론은 심리적 경향의 동적인 관계를 파악한데 그 특징이 있으며 직관, 감각 등 비합리적 기능을 사고, 감정 등 합리적 기능과 똑같이 정신의 기능과 하나로 포함시켰다는 점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융의 심리학적 유형을 2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는데 즉, 일반적인 태도상에서 보는 유형과 정신의 각 특수 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그중 적응과정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분화된 기능에 따라 구분하는 유형이 그것이다. 태도상에서 보는 유형에는 내향적 태도와 외향적 태도가 있으며 기능유형에는 합리적 기능인 사고, 감정과 비합리적 기능인 감각, 직관기능이 있는데 여기 기능유형에서 각 기능을 구성하는 두 기능은 서로 극을 이루어 대립하고 있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그림Ⅱ-1>.




 <그림 Ⅱ-1> 정신의 4기능 (이부영, 1991)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사고와 감정을 합리적 기능에 분류하는 것은 두 기능이 모두 정, 부정, 쾌, 불쾌의 판단을 내리는 기능인데, 판단 과정이란 이치에 맞게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감각과 직관은 이성적 고려를 거치지 않은 직접적인 인식이므로 비합리적 기능에 속한다.

융은 4가지 정신 기능과 2가지 태도가 조합을 이루어 다음과 같은 8가지 심리유형을 만들어 낸다고 보았다.

외향적 사고형(Extraverted Thinking Type)은 네 가지의 정신기능 가운데서 주로 객관적 준거에 따라 진행되는 사고기능에 의하여 생활하는 형이다. 내향적 사고형(Introverted Thinking Type)은 지적인 판단이 어느 다른 것보다도 중요한 유형인 유형임은 외향적 사고형과 같으나 이 형의 인간의 사고는 객관적 사실보다는 이념이나 관념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외향적 감정형(Extraverted Feeling Type)은 감정기능이 그의 생활의 주요한 근간이 되며, 그의 감정은 객체에 기준을 둔 외

향적 감정이다. 감정은 여성의 심리의 가시적인 특징인 만큼 감정형은 외향형이든 내향형이든 여성에 많다고 융은 지적한다. 내향적 감정형(Introverted Feeling type)은 무척 분화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감정은 내적인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므로 밖으로 표현되지도 않고 객체에 작용하지도 않는다. 외향적 감각형(Extraverted Sensation Type)은 어떤 형과도 비길 수 없는 현실주의자라고 융은 말한다. 그의 객관적 사실을 감득하는 능력은 비상하게 발달되어 있다. 그는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현실적인 경험을 설사 없이 쌓아 나가는 사람이다. 내향적 감각형(Introverted Sensation Type)은 객관적 자극에 의해서 생긴 주관적 감각 부분에 따라 그 행위가 결정된다. 객체는 그에게 있어 그리 중요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 외향적 직관형(Extraverted iNtuition Type)은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파악하고, 그것이 객관 세계에서 실현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데 비상한 능력을 발휘한다. 내향적 직관형(Introverted iNtuition Type)은 직관기능이 객체가 아닌 내적인 세계로 향한다.

융은 이러한 선호성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며, 이러한 근본적인 선호성이 각기 다른 심리유형을 가진 인간의 개인차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선호성은 어떤 민족이나 문화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에게 본질적인 것으로 믿었다(김정택·심혜숙, 1990).

## 2. 어린이 및 청소년 성격유형

어린이 및 청소년 성격유형검사(MMTIC)는 성인용 성격유형검사(MBTI)와 같이 Jung의 심리유형론을 그대로 적용하여 내용 이해에서나 사용방법 전개를 많은 부분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 이 검사도구는 Jung의 심리유형 이론을 보다 쉽게 이해하여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다(김정택·심혜숙, 1990). 더불어 Jung의 심리유형 모델을 바탕으로 외부세계에 대한 생활양식에 해당되는 판단(Judging : J)기능과 인식(Perceiving : P)기능을 검사도구에 추가하여서 < 그림 II-2 >에 나타낸 것처럼 모두 4가지 선호지표 각자의 방향성으로 성격적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실을 중시하면 사고(T), 주관적인 판단에 따르는 것을 감정(F)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사고형(T)은 논리와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린다. 공평과 객관적인 사실이 이들에게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감정형(F)은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어떤 영향이 미칠까 하는 등 사람 중심으로 결정을 내린다. 다른 사람의 기분에 민감하고 자신의 결정이 그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판단기능이라 한다.

판단형(J)은 질서, 계획과 구조화된 생활양식을 선호한다. 마무리 짓기를 선호하고, 조직하고, 끝맺음하고 그 다음 다른 일로 넘어가는 것을 선호한다. 인식형(P)은 자발적이고 유연한 생활양식을 선호한다. 호기심이 많고, 상황에 맞추어 적응하며, 끝맺음보다는 개방된 상태를 선호하며, 이것저것 관심을 가지고 벌리는 것이 많다.

8가지 선호경향인 E-I, S-N, T-F, J-P가 조합되면 16가지 성격유형이 <표Ⅱ-1>과 같이 나타난다.

<표Ⅱ-1> 16가지 성격유형 (Myers, McCaulley, 1985)

<b>ISTJ</b> I 깊이와 집중력 S 현실감각 T 논리와 분석력 J 조직과 추진력	<b>ISFJ</b> I 깊이와 집중력 S 현실감각 F 인화력 J 조직과 추진력	<b>INFJ</b> I 깊이와 집중력 N 비전과 통찰력 F 인화력 J 조직과 추진력	<b>INTJ</b> I 깊이와 집중력 N 비전과 통찰력 T 논리와 분석력 J 조직과 추진력
<b>ISTP</b> I 깊이와 집중력 S 현실감각 T 논리와 분석력 P 수용과 적응력	<b>ISFP</b> I 깊이와 집중력 S 현실감각 F 인화력 P 수용과 적응력	<b>INFP</b> I 깊이와 집중력 N 비전과 통찰력 F 인화력 P 수용과 적응력	<b>INTP</b> I 깊이와 집중력 N 비전과 통찰력 T 논리와 분석력 P 수용과 적응력
<b>ESTP</b> E 폭넓은 활동력 S 현실감각 T 논리와 분석력 P 수용과 적응력	<b>ESFP</b> E 폭넓은 활동력 S 현실감각 F 인화력 P 수용과 적응력	<b>ENFP</b> E 폭넓은 활동력 N 비전과 통찰력 F 인화력 P 수용과 적응력	<b>ENTP</b> E 폭넓은 활동력 N 비전과 통찰력 T 논리와 분석력 P 수용과 적응력
<b>ESTJ</b> E 폭넓은 활동력 S 현실감각 T 논리와 분석력 J 조직과 추진력	<b>ESFJ</b> E 폭넓은 활동력 S 현실감각 F 인화력 J 조직과 추진력	<b>ENFJ</b> E 폭넓은 활동력 N 비전과 통찰력 F 인화력 J 조직과 추진력	<b>ENTJ</b> E 폭넓은 활동력 N 비전과 통찰력 T 논리와 분석력 J 조직과 추진력

MMTIC에는 성격 유형을 나타내는 4가지 문자부호가 요약되어 있다(E/I, S/N, T/F, J/P). 그리고 각 지표마다 “U”라는 또 하나의 지표를 첨가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의 선호도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결정되지 않은(undetermined)”의 의미로서 “U” 부호를 사용하였다. 이는 단순히 선호 방향이 둘 중 하나에 귀속될 만큼 명료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선호도 측정을 통해 만족할 만큼 분명한 수준의 선호도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말한다. 아동은 계속 성장 발달하는 시기 중에 있기 때문에 아동의 선호성이 잘 분화되지 않아 나타날 수도 있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기 어려워 심리 부적응적 행동으로 자신을 나타낼 수도 있다 (1996, 민정식).

### 3. 성격유형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Myers와 McCaully는 “MBTI 개발과 활용”에서 유형의 분류는 교육성취의 세 가지 측면 즉, 적성(aptitude), 적용(application), 흥미(interest)와 관계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유형론에서는 학업성취와 관련되는 3가지 관점에서 유형을 분류한다.

적성(aptitude)은 주로 내향성(I)의 영역인 개념과 아이디어, 그리고 직관(N)의 영역인 상징, 추상 및 이론 등에 대한 학생의 능력을 재는 것으로, 연구결과 적성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척도는 S-N, E-I 순이었으며, N과 I의 선호도가 높을수록 적성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T)와 감정(F)은 내향성과 직관보다는 학업 성적에 덜 관련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논리적 분석을 필요로 하는 과제는 사고형들이 좋아하며, 인간의 동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과제는 감정형들이 더 좋아한다. JP선호도는 적성과 성취간의 차이를 어느 정도 변별하기 위해 쓰인다. 인식형의 사람들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폭넓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점이 적성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게 한다. 반면 판단형의 사람들은 적용에 관심이 많고 적용분야에서 종종 높은 점수를 얻는다. 적용(application)을 Myers는 학업성취의 구성물중의 하나로 보고,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 부지런하고 주의를 고정시키는 지속력”으로 정의하였다. 적용은 일을 계획하고 조직하는 것을 잘하는 J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interest)는 가르치는 방법이나 배울 수 있는 내용과 유

형선호도 사이에 배합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학생의 기대와 관계되는 것으로 J-P 척도와 관련된다.

Myers에 의하면 이러한 선호도에 따른 학업성취의 관련정도는 고등학생보다 대학생에게 덜 나타나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차이가 약해진다고 하였으며 학업성취는 적성, 적용, 흥미간의 상호작용의 최종산물이라고 하였다.

## 1) 성격유형과 학습양식

인간 성격의 개인차를 이해하는 유형론은 1920년 심리유형론(Psychological Type)이라는 Jung의 저서에서 체계적으로 나타난다. 융의 심리유형론의 요점은 인간의 행동이 겉으로 보기에 는 멋대로 이고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변화무쌍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질서정연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몇 가지 특징적인 경향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강조한다(Jung, 1976). 융의 이론에 바탕을 두고 Katharine C. Briggs와 Isabel Briggs Myers가 연구 개발한 인간 이해를 위한 도구인 MBTI는 융의 4가지 선호경향의 지표들을 가능한 방법으로 조합하여 16가지의 성격유형을 도출해 내었다.

MBTI는 1941년 개발된 이후로 지금까지 상담, 심리치료, 인간관계 훈련분야, 교육, 조직개발 등 여러 분야에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특히 Myers와 McCauly(1985)는 교육에 있어서 MBTI의 활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① 각 성격유형에 적절한 교수방법을 개발할 수 있다.
- ② 학습동기에 있어서 각 유형마다의 개인차를 발견할 수 있다. 독서, 적성, 성취에 있어서의 개인차 발견뿐만 아니라, 학습동기를 이해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적합한 학습방법을 개발할 수 있게 하고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지도방법을 찾을 수 있게 해준다.
- ③ 각 유형에 맞는 교과과정, 교수방법, 교육매체의 활용, 교육내용을 찾을 수 있다.
- ④ 모든 유형마다 가지고 있는 욕구를 충족시켜줄 과외활동을 찾을 수 있다.
- ⑤ 학생들의 성격유형을 파악하여 교사, 행정가, 부모의 원활한 협조를 가능케 한다.

위에서 살펴보면 Myers와 McCauly는 교육에 있어서 MBTI의 활용을 대부분



성격유형과 학습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다. 특히 1975년 Princeton 소재의 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 의해서 MBTI가 공식 채택되면서부터 성격유형과 학습양식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여지고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Lawrence, 1982).

Eggins(1979)는 6학년 350명을 대상으로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을 분류하는 학습방법으로 세 가지 교수법을 각각 적용하여 그 효과를 비교하였다. 학생들은 슬라이드와 오디오테이프를 이용해 세 가지 학습모델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다. 첫째 모델은 Bruner의 모델로서 귀납적 방법에 따른다. 둘째 모델은 Ausubel의 선행 조직자 모델로서 설교적(Didactic) 방법인데, 이 접근법은 학생들이 이미 친숙한 개념과 새로운 지식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셋째 모델은 Gagné의 모델로서 구체적인 예를 사용하고 구체적인 예에서 보다 추상적인 개념으로 연결시켜 매우 구조화시킨 방법이다.

이 연구의 결과 Bruner의 접근법에는 직관형(N)이 적절했고, Gagné의 접근법은 감각형(S)에게 적절했다. 지능이 높은 학생들에게는 성격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교수법이 유용했지만, 판단형(T)중에 지능이 낮은 학생에게는 Gagné의 접근이 Ausubel과 Bruner의 접근은 지능이 높은 판단형(T)의 학생에게 효과적이었다. 또한 지능이 높은 인식형(P)의 학생에게는 Gagné의 접근이 가장 효과적이었고, 지능이 낮은 인식형(P)에게는 Ausubel 접근이 더 효과적이었다. SJ유형과 NJ유형에게는 3가지 접근법 모두가 적절했고, SP유형과 NP유형은 교수법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았다. NP유형은 귀납적인 Bruner 접근법이 적절했고, SP유형에게는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설계된 Gagné의 모델이 적절했다.

Eggin은 자신의 연구를 통해 학습에 있어서 성격유형에 따른 차이는 나이가 어린 학생일수록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학습에 있어서 성격유형의 차이는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습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감각형(S)과 인식형(P)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논의점들을 제안해 주었다.

Lawrence(1984)는 유형이론의 급속한 발달과 변화에 대해 고찰하였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와 성인학습집단의 외향적(E)인 사람은 집단 속에서 배우는 것을 좋아

했다. 내향성(I)들은 경험적인 훈련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으며 실제로 참여도가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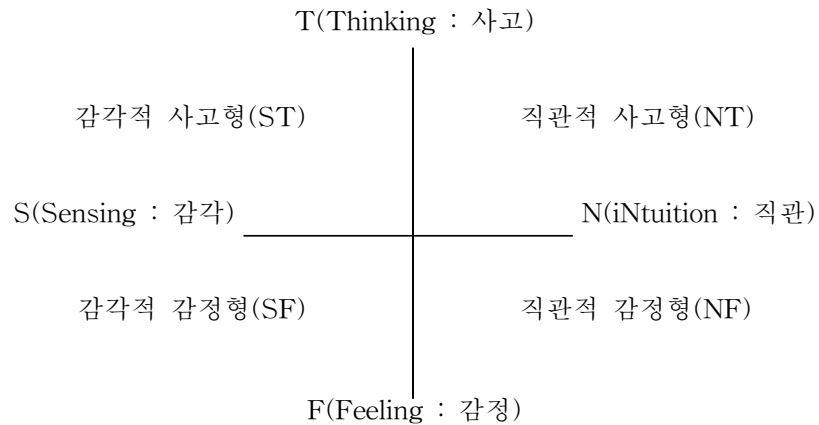
TV나 오디오 수업은 감각형(S)들이 좋아했고, 이들을 반복적으로 봄으로써 학습 효과가 커졌다. 수학이나 실험실 수업 역시 감각형들이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경험적 과제를 다루는 실험실이나 타인과 공동작업을 하는 실험실은 직관형(N)들이 더 선호했다. 기억력은 감각형들이 좋았지만,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개념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기억력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감각형은 조심성 있게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 방법으로 시간과 일을 계획함으로써 목표를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직관형들은 자신들의 독창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과제를 자기 방식대로 하기를 좋아한다. 직관형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자신들이 우수하다고 느끼며 좋은 성적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들은 논술식 시험을 더 좋아하며, 감각형들보다 통찰력이 뛰어나 보인다.

객관성과 논리성을 선호하는 사고형(T)들은 분명한 목표를 가진 구조화된 수업을 더 좋아하며, 이러한 경향은 강의를 들을 때나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감정형(F)은 집단 활동을 좋아하며 집단 내에서의 인간관계에도 관심이 많다. 감정형은 또한 사교생활을 과다하게 함으로써 공부에 방해가 될 때가 있다고 했다.

적성에 비해 높은 성적을 내는 판단형(J)들은 계획에 따라 공부함으로써 효과를 많이 보며 정해진 시간 내에 숙제를 끝내기를 좋아한다. 또한 실습과목에서 능력 발휘를 잘한다. 판단형은 교제, 강의, 증명 등을 통해 순서적으로 학습과제가 제시되는 것을 좋아한다. 인식형(P)은 숙제를 제시 시간에 못해 서두르는 경향이 크다. 경험적인 학습 장면에서는 인식형들이 논제를 정의하는데 있어 더욱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면을 보였다.

## 2) 심리기능과 학습양식

MBTI에서 심리기능(Psychological Function)에 속하는 인식기능(S, N)과 판단기능(T, F)의 역동에 따라 각각 감각적 사고형(ST), 직관적 사고형(NT), 직관적 감정형(NF), 감각적 감정형(SF)의 4가지 기능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림 II-3> 인식기능과 판단기능에 의한 기능유형

위의 4가지 기능유형은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기능들을 수행하므로 같은 상황에서도 특별히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의 분야가 다르다. 이러한 기능유형이 나타내는 각 유형의 특징은 Myers와 McCaulley(1985)의 연구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ST형은 인식할 때 주로 감각에 의존하고 판단할 때에는 주로 사고를 사용한다. ST형은 사실에 관심을 둔다. 왜냐하면 사실은 감각(보고, 듣고, 만지고, 세고, 무게를 재고, 측정하는)을 통해 수집하고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ST형은 수집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도 인정에 얽매이지 않고 논리적인 분석에 의해 결정을 내린다. 왜냐하면 그들이 신뢰하는 것은 사고로서, 원인에서 결과, 가정에서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단계적 논리적 추리과정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SF형은 ST형과 마찬가지로 인식할 때 주로 감각을 사용한다. 그러나 판단할 때에는 감정을 선호한다. 그들은 감각을 통해 직접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는 개인의 주관성이나 개인적인 온정을 바탕으로 한다. 의사결정을 내릴 때 주관성과 온정을 중시하는 것은 감정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즉, SF형은 의사결정을 내릴 때 자기 자신이나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중시한다. 그리고 그들은 사물에 대한 사실보다는 사람에 대한 사실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NF형은 SF형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때 감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따뜻한 온정의 소유자이다. 그러나 인식할 때에는 감각보다 직관을 선호하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

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 대신 새로운 프로젝트와 같은 가능성,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알려질 수 있는 진리와 같은 것에 관심이 많다. NF형은 전형적으로 복잡한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이 많다. 직관을 선호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실 이면에 깔려 있는 양식, 상징적 의미, 이론적 관계 등에 관심이 많다. 또한 감정과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직관적 통찰을 인간관계에서 사용하려고 한다.

NT형은 NF형과 마찬가지로 인식할 때 직관의 사용을 선호한다. 그러나 판단할 때에는 사고의 객관성을 중시한다. NT형은 역시 가능성, 이론적 관계, 추상적인 양식에 초점을 맞추지만, 인정에 얽매이지 않는 객관적 합리적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판단을 내리려고 한다. NT형이 추구하는 가능성은 인간적인 요소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기술적, 과학적, 이론적, 관리적 분야에서의 가능성이다.

이러한 4개의 기능별 성격 유형의 특징에 따라 각 유형이 선호하는 학습양식은 Hanson(1982)의 연구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ST형은 계획적인 수련학습과 훈련이 반복되는 암기식의 명령식 학습, 실습, 기계적 도구나 자료를 활용한 실제적 경험학습을 선호한다. ST형은 집중적 사고를 요하거나 증명하는 과제를 선호하며 경험적이고 의도적이며 조직된 작업환경이나 경쟁적인 분위기에서 한층 자극 받는다.

SF형은 그룹연구 실험훈련과 같은 직접적인 팀게임, 동료지도와 같은 인간적인 유대감 및 사회적인 학습을 선호하고 발표와 의사소통에 관계된 과제를 선호한다. 또한 SF형은 인간미가 있고 상호작용 협조적인 분위기를 선호한다.

NF형은 비지시적 학습과 창의적 문제해결학습을 선호하며 창조적 예술적 표현이나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자기 표현의 과제를 선호한다. 또한 NF형은 융통성이 있고 상상력이 인정되는 분위기의 학습을 선호한다.

NT형은 조사와 개념형성 학습이나 소크라테스식의 문답법적인 학습, 문제해결 학습을 선호하며 귀납적 추리에 의한 문제해결이나 정보처리, 조사연구, 작문 등의 과제를 선호한다. 또한 NT형은 발견과 조사와 독립심이 지지되는 분위기의 학습을 선호한다.

### 3) 심리기질과 학습양식

성격유형의 척도별 학습양식을 기질(Temperament)별로 분류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학습에 접근한 것이 Keirsey의 연구에 잘 나타나 있다. Keirsey는 MBTI의 16가지의 성격유형 중 인식할 수 있고, 명확히 할 수 있는 하나의 일정한 행동-패턴(Behavior-Pattern)을 각 유형별로 나타낸 기질에 따라 학습양식을 연구했다.

Keirsey(1982)는 4개의 기질을 명확히 하고, 학습양식에 따라 4개의 기질의 특징에 맞는 학습자의 이름을 다시 붙였다.

<표 II-2> 각 기질 유형에 따른 학습자의 학습 양식(정경연, 1994)

Temperament	Learning style
SP기질(Dionysian Temperament)	활동적인 자발적인 학습자 (Actual-Spontaneous Learner)
SJ기질(Epimethean Temperament)	활동적 일상적인 학습자 (Actual-Routine Learner)
NT기질(Promethean Temperament)	개념적 구체적인 학습자 (Conceptual-Specific Learner)
NF기질(Apollonian Temperament)	개념적 포괄적인 학습자 (Conceptual-Global Learner)

각 기질에 따른 아동의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김정택·심혜숙·임승환 역, 1993).

SP기질의 아동은 디오니소스(Dionysus :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포도주와 연극과 다산의 신)적인, 감각적이며 유희적인 기질의 아동이다. SJ기질의 아동은 에피메테우스(Epimetheus : 프로메테우스의 동생, 형의 충고를 잊어버리고 판도라를 아내로 맞이함)적인, 감각적이면서도 신중한 기질의 아동이다. NT기질의 아동은 프로메테우스(Prometheus :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준 죄로 큰 독수리에게 간을 뜯어 먹히지만 헤라클레스에 의해 구조되었음)적인, 직관적이며 사고형인 기질의 아동이다. NF기질의 아동은 아폴로(Apollo : 태양신, 빛, 음악, 시, 예언, 사랑의 신)적인, 직관적이며 감정적(Intuitive Feeling)인 기질의 아동이다.

각 기질에 따른 학습양식은 다음과 같다.(정경연, 1994)

활동적이고 자발적인 학습자(Actual-Spontaneous Learner)인 SP형은 육체적인 실체에 관심을 가지며,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훌륭한 교사라고 생각한다. ASL은 논리나 계획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으며 그들의 동기는 원하는 것을 얻는 활동에서 온다. 따라서 ASL에게는 시청각 자료나 도구를 사용한 학습이 효과적이다. ASL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지식은 요구하며, 지식이란 단지 즉각적인 관련성이 있을 때만 중요하다. ASL은 순간에 살기 때문에 계획과 조직을 원하지 않으며, 학급일이 준비와 연구의 문제가 되면 흥미를 잃는다. 자유로운 활동과 경쟁적인 다양성을 선호하는 ASL에게 반복과 통제를 요구하는 형식 교육은 지옥일수도 있다. 따라서 ASL은 형식 교육에서 종종 탈락되거나 실패하기도 하며, 책상에 장시간 앉아 있기를 원하는 학급에서는 문제아가 되기도 한다. ASL은 작은 집단이든 큰 집단이든 개인적으로 자주 변화하는 것을 즐기며 다양한 과제와 충동적인 작업에 잘 반응한다. 집단 토론에 있어서도 조직화되고 준비가 필요한 토론보다 리더가 없이 자유롭게 반응할 수 있는 토론을 선호한다. 자발적으로 끝없이 행동하고 다양성과 흥미를 주는 곳에서 ASL은 활기차 있고 반 친구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원천이 된다. 지필평가나 교과서를 읽고 답하는 식의 평가는 그와 어울리지 않으며, 숙제 역시 그에게는 교사나 부모 사이의 충돌을 제공하는 원인밖에 되지 못한다.

활동적이고 일상적인 학습자(Actual-Routine Learner)인 SJ형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선호하고 사회적 집단에 소속되기를 원한다. ARL은 잘 구조화된 과제를 완성하고, 반복과 훈련 그리고 한단계 한단계 밟아가는 과정속에서 절차나 사실을 기억하고 측정하여 지식을 얻는다. 이와 같은 ARL에게는 조직적인 강의나 소크라테스적인 문답식 학습이 효과적이다. ARL은 일관성과 명확한 절차가 있는 학습에서, 잘 적응하며 학급규칙을 잘 따르는 모범생과 같은 학생이다. 만약 ARL에게 창조적이고, 독창적이고, 추론하는 학습이나 과제를 요구한다면, 그는 어리둥절하고 고통을 느끼기까지 한다. 학급에서 교사가 칠판에 매일 날짜를 적는 습관을 하루만 빠뜨려도, 그 즉시 알려주는 학생이 ARL이다. ARL은 정해진 일과표를 준수하는 교과서와 학습장을 잘 정리하며, 연습과 훈련이 반복되는 과제나 학습할 재료를 준비하는 과제를 잘한다. ARL에게는 계획과 준비없이 복잡한 주제에 대해

토론할 때 자발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개념적 구체적인 학습자(Conceptual-Specific Learner)인 NT형은 지적인 호기심이 많으며 인지적 세계를 구조화하기 위해 규율을 수립하고 원칙을 이해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 CSL은 고립된 사실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이론과 원리를 사용한다. CSL의 인생은 진지한 연구와 탐험의 과정이다. CSL은 장시간 하나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을 가졌으며, 자신의 느슨한 주의집중이나 수동성을 허락하지 않는다. CSL은 감정을 표현하고 호의를 보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4개의 기질 중 가장 덜 사회적이다. 따라서 혼자서 활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CSL은 논리적이고 비행동적인 학습을 선호한다. 조리가 있고 간결한 강의도 효과적이며, 대개 자신의 지식을 동원해 강의를 끝까지 추론해 나간다. CSL은 대체로 질문이 많고, 구체적인 정보를 학습하거나 일상적인 과제에 따르는 반복과 훈련에는 관심이 없다. 실험을 통해 비평할 수 있고, 사고에 있는 숨겨진 가설을 조사하는 학습을 선호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낡은 아이디어를 비교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의 중요성과 낡은 아이디어의 한계를 설명할 수 있는 논리적인 탐구학습을 선호한다. 독립적인 학습자인 CSL에게는 영감을 추구할 수 있거나 정보를 찾는 과제, 혹은 장기간의 프로젝트도 효과적이다.

개념적 포괄적 학습자(Conceptual-Global Learner)인 NF형은 자신을 이해하고 실현하는데 관심이 많으며 의미를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들을 연구한다. CGL은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미래를 방향 지우는데, 이것은 CSL과는 달리 원리원칙의 가능성이 아니라 인간에 초점을 맞춘 가능성이다. CGL의 인지적 경험은 잘 발달된 판단과 예리하게 관찰한 사실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이다. 명확한 원칙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느낌과 직감으로 빠르게 통찰한다. 그들의 직감은 꽤 재미있고 생생하지만 상세하지 않고 기술적이지 않다. CGL은 일반적으로 높은 기준을 세우기 때문에 학업 성취가 높으며, 창의적이고, 의사소통을 즐긴다. CGL은 친구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좋아하고,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며, 그들의 통찰과 인간적 따뜻함 때문에 친구들에게 상담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CGL은 비평, 충돌, 압력에 의해 상처를 받기 쉽고, 다른 학생이 거부당하고 상처를 입는 것도 강하게 받아들인다. CGL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학급에 참여하는데 교사로부터 개인적인 주의와 격려를 필요로 한다. 만약 이러한 원조가



없다면 그들은 의기소침하고 외로워진다. CGL에게는 개인화되고 인간적인 접근에 의한 학습이 효과적이다. 열정적이고 드라마틱한 발표와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는 기회가 있는 집단토론과 같은 학습양식, 연극이나 역할연기 또한 효과적이다.

## 4. 교과별 특성과 MMTIC

### 1) 국어과

학교 교육의 여러 교과 중에서 국어 교과는 ‘인간의 언어사용’을 다루는 교과이다. 이 정의는 국어과는 언어학의 지식이나 내용, 문학의 개념, 원리, 구조 등 지식적인 요소보다는 학생들이 한국어를 바르게 사용하면서 표현과 이해 활동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교과라는 뜻이다. 국어과 교육이 학생들의 언어사용 기능 신장을 위한 교육이라는 말속에는 최소한 학생, 언어, 사용, 교육의 네 가지 요인이 포함된다. 국어과 교육의 궁극적 목표를 ‘학생들의 언어사용(기능을 신장시켜 주는) 교육’으로 정의하는 것도 바로 이 네 가지의 필수적인 요인 때문이다. 국어 교과는 지식 자체를 다루는 교과라기보다는 학생들의 언어사용(표현 기능과 이해 기능)을 다루는 교과이다(교육부, 1998).

MBTI의 G형의 응답지에는 “당신은 어떤 과목을 가장 좋아합니까 - 수학, 영어, 과학, 역사, 실용기술, 음악, 미술?”이라는 질문이 들어있다. MBTI 자료은행의 27,787명의 응답지를 분석하여 16가지 유형별로 선호과목을 분류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나라의 국어에 해당하는 영어가 INFJ, INFP, ENFP, ENFJ, ENTJ 유형에서 선호하는 과목이었다.

McCaulley(1973)의 Florida 대학생의 학업성취 표집을 보면 영어교과에서 EI중에서 I가, SN중에서 N이 유의미하게 높은 성취를 보여주었고, TF와 JP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McCaulley와 Natter(1974)의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MBTI 선호도와 학업성취간의 평균점수의 차이를 보면 영어교과에서 EI, TF, JP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IN, EN, IS, ES의 MBTI 선호도와 성적의 평균점수에 대한 연구에서 언어분야에 있어서 내향적 직관(IN), 외향적 직관(EN), 내향적 감각(IS), 외향적 감각(ES)



순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김정택·심혜숙, 제석봉 역, 1995).

## 2) 수학과

수학과 교육 과정에 의거하여 편찬된 수학 교과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주로 수학적 개념, 원리, 법칙, 성질, 기능 등에 속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수학 교과서의 단원별 학습 주제에 대한 교재는 먼저 수학적 개념을 형성하고, 다음에는 이를 토대로 수학적 원리, 법칙, 성질 등을 발견하게 하고, 이들을 활용하여 수학적 사고력과 기능이 신장되도록 구성하고 있다(교육부, 1999).

MBTI 자료은행의 27,787명의 응답지를 분석하여 16가지 유형별로 선호과목을 분류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는데 수학과는 ISTJ, ISTP, ESTP, ESTJ, ESFJ 유형에서 선호하는 과목이었다.

McCaulley(1973)의 Florida 대학생의 학업성취 표집을 보면 수학교과에서 EI, SN, TF, JP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McCaulley와 Natter(1974)의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MBTI 선호도와 학업성취간의 평균점수의 차이를 보면 수학교과에서 EI, TF, JP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May(1971)의 8학년 수학과 학생들의 수학 계산, 수학 개념, 수학 적용 영역의 성취검사에서 직관형들이 감각형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성취를 보였다.

IN, EN, IS, ES의 MBTI 선호도와 성적의 평균점수에 대한 연구에서 수학분야에 있어서 내향적 직관(IN), 외향적 직관(EN), 내향적 감각(IS), 외향적 감각(ES) 순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김정택·심혜숙, 제석봉 역, 1995). 그렇지만 IS의 평균점수는 3.04, ES의 평균점수는 3.03으로 두 집단사이에는 평균점수 차이가 작다.

## 3) 사회과

사회과는 사회 현상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고, 올바른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가치·태도를 지니게 함으로써 민주 시민의 자질을 육성하려는 교과이다. 즉, 사회과에서는 사회 현상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게 하고 탐구 방법을 익히게 하여, 사회를 올바르게 인식하게 하며, 민주적 생활과 조화로운 인간 관계에 필요한 가치·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초등학교 사회과에서는 학생들이 생활주변의 사회적 사실과 현상에 대하여 관심과 흥미를 가지게 하여, 생활과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 이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기르며,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교육부, 1997).

MBTI 자료은행의 27,787명의 응답지를 분석하여 16가지 유형별로 선호과목을 분류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는데 사회과에 포함되는 역사가 ESTP, ESFP 유형에서 선호하는 과목이었다.

McCaulley(1973)의 Florida 대학생의 학업성취 표집을 보면 사회학에서 EI중에서 I가, SN중에서 N이, TF중에서 T가 유의미하게 높은 성취를 보여주었고, JP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McCaulley와 Natter(1974)의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MBTI 선호도와 학업성취간의 평균점수의 차이를 보면 사회학에서 EI, TF, JP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May(1971)의 8학년 수학과 학생들의 사회학 영역의 성취검사에서 직관형들이 감각형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성취를 보였다.

IN, EN, IS, ES의 MBTI 선호도와 성적의 평균점수에 대한 연구에서 언어분야에 있어서 내향적 직관(IN), 외향적 직관(EN), 외향적 감각(ES), 내향적 감각(IS) 순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김정택·심혜숙, 제석봉 역, 1995).

#### 4) 자연과

자연과는 주위의 사물이나 자연 현상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탐구함으로써 과학의 지식을 이해시키고, 과학적 태도 및 창의적인 사고력과 합리적인 판단력을 길러 주는 교과이다.

자연과의 내용은 물질, 운동과 에너지, 생명, 지구 등의 지식 영역과 관찰, 분류, 측정, 의사 소통, 예상, 모형 사용, 자료 해석, 실험 등의 탐구 영역으로 구성한다. 자연과의 내용은 과학의 주요 개념이 학습자의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황 속에서 다루어지도록 하고, 수업 시간에 학습한 지식과 탐구 방법을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교육부, 1997).

MBTI 자료은행의 27,787명의 응답지를 분석하여 16가지 유형별로 선호과목을 분류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는데 과학은 INTJ, INTP, ENTP, ENTJ 유형에

서 선호하는 과목이었다.

McCaulley(1973)의 Florida 대학생의 학업성취 표집을 보면 생물학과 물리학에서 EI중에서 I가, SN중에서 N이, TF중에서 T가 유의미하게 높은 성취를 보여주었고, JP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McCaulley와 Natter(1974)의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MBTI 선호도와 학업성취간의 평균점수의 차이를 보면 과학에서 EI, TF, JP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IN, EN, IS, ES의 MBTI 선호도와 성적의 평균점수에 대한 연구에서 과학은 내향적 직관(IN), 외향적 직관(EN), 외향적 감각(ES), 내향적 감각(IS)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김정택·심혜숙, 제석봉 역, 1995).

## 5) 체육과

전통적으로 체육은 '신체의 교육' 또는 '신체를 통한 교육'의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화에로의 입문 과정으로서의 체육'이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체육은 학생에게 단순히 운동 기술과 규칙을 가르치고, 체력을 유지하여 건강하게 살게 하고 즐겁게 운동에 참여하는 그이상의 가치가 있다. 교육적 가치를 교과로서 체육은 학생을 문명화된 사회에 입문시키는 중요한 일을 수행하게 된다(교육부, 1999).

Lacy(1984)의 운동의 흥미에 대하여 남성집단에서는 EI중에서 E, SN중에서 S, TF중에서 F, JP중에서 P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고, 여성집단에서는 EI중에서 E, SN중에서 S, TF중에서 F가 유의미하게 나왔다. 전체적으로 외향성 집단과 감각형 집단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

## 6) 음악과

음악 학습을 통하여 우리들은 학생들에게 음악의 가치를 이해하도록 할 수 있다. 음악은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내용은 물론이요,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인간의 상상이나 느낌 등을 소리로 표현하는 하나의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학교 음악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이러한 음악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또한 음악이 인간 사회에서 기여하는 가치를 이해하게 함으로써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하다(교육부, 1997).

MBTI 자료은행의 27,787명의 응답지를 분석하여 16가지 유형별로 선호과목을 분류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는데 음악은 INFJ, INFP, ENFP, ENFJ, ESFJ 유형에서 선호하는 과목이었다.

Hockert(1975)의 음악과 음악교육 대학전공자들의 흥미검사에서 남성집단에서는 EI중에서 I, SN중에서 N, JP중에서 P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고, 여성집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Lacy(1984)의 음악가의 흥미검사에서 남성집단에서는 EI중에서 I, SN중에서 N, TF중에서 F, JP중에서 P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고, 여성집단에서는 SN중에서 N, JP중에서 P가 유의미하게 나왔다. 전체적으로 직관형과 집단과 인식형 집단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

## 7) 미술과

미술 교육의 특성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이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다. 첫째,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견해는 정서 교육으로서의 미술 교육이다. 둘째, 창조성의 육성을 위한 미술교육이다. 셋째, 여러 형태의 미술 활동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만들고 그리는 등의 이른바 표현 능력을 기른다는 관점이다. 전통적인 미술 교육의 관점 외에도 인간학적 관점과 인간 심리학적 관점이 있다(교육부, 1999).

MBTI 자료은행의 27,787명의 응답지를 분석하여 16가지 유형별로 선호과목을 분류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는데 음악은 INFJ, INFP, ENFP, ENFJ, INTP, ENTP 유형에서 선호하는 과목이었다.

Hockert(1975)의 미술과 미술교육 대학전공자들의 흥미검사에서 남성집단에서는 EI중에서 I, SN중에서 N, TF중에서 F, JP중에서 P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고, 여성집단에서는 SN중에서 N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Lacy(1984)의 미술가의 흥미검사에서 남성집단에서는 EI중에서 I, SN중에서 N, JP중에서 P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고, 여성집단에서는 SN중에서 N, TF중에서 T, JP중에서 P가 유의미하게 나왔다. 전체적으로 직관형과 집단과 인식형 집단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

Lacy(1984)의 미술교사의 흥미검사에서 남성집단에서는 SN중에서 N, TF중에서

F, JP중에서 P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고, 여성집단에서는 SN중에서 N, TF중에서 F, JP중에서 P가 유의미하게 나왔다. 전체적으로 직관형과 집단과 감정형 집단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 미술가와 미술교사의 흥미검사 차이는 타인에 대한 관심의 차이에서 교사들은 감정형 집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다.



### Ⅲ. 연구방법

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 측정도구, 자료처리 순으로 연구방법을 살펴보겠다.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시내 S초등학교 4학년 아동 388명(남 215명, 여 173명)이다.

#### 2. 측정도구

##### 1) 어린이 및 청소년 성격유형검사(MMTIC 검사)

성인용 심리유형검사 MBTI가 C. Jung의 심리유형이론에 그 바탕을 두고 있듯이, 어린이 및 청소년 성격유형검사(MMTIC) 역시 같은 이론에 근거하여 1990년 미국의 C. Meisgeier와 E. Murphy에 의해 개발되었다. 그리하여 이 검사는 MMTIC(Murphy-Meisgeier Type Indicator For Children)라고 불리고 있다. MMTIC의 한국 표준화 작업은 김정택, 심혜숙에 의해 1993년 만8세부터 13세까지의 어린이 및 청소년 26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론적인 틀과 문항구성에 있어서 MBTI의 저자 K. Briggs와 I. Myers의 선호도 지표(E-I, S-N, T-F, J-P)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검사도구를 한국판으로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검사-재검사에 의한 신뢰도는 E-I 지표 .76, S-N 지표 .65, T-F 지표 .63, J-P 지표 .63이며 어린이용 성격진단 검사(중앙적성출판사)간의 구성타당도는 .58( $P < 0.001$ )로 검증되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MMTIC 한국어판 검사지는 7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채점방식은 손 채점과 컴퓨터 채점 모두 가능한데,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채점이 가능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본 검사의 문항 구성은 E-I 선호도를 묻는 문항 수

16, S-N 선호도를 묻는 문항 수 18, T-F 선호도를 묻는 문항 수 18, J-P 선호도를 묻는 문항 수 18개로 구성되어 있다.

MMTIC에서는 MBTI와 다르게 학생들의 선호도가 기준점수와 뚜렷한 차이가 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유형을 분명하게 결정하지 못하는 의미로 미결정(U-band ; Undifferentiated band)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즉, U-band는 각 지표의 양극에서 가운데 영역에 위치하여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분류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나타내는 유형이다. 이 유형이 나타나는 원인은 아직도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발달과정 중이거나 아니면 문항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경우,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자신의 모습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 학업성취

학생들의 학업성취는 학생들이 재학중인 S초등학교의 수행평가 계획에 따라 국어과 5개 영역(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문학), 수학과 5개 영역(수, 연산, 도형, 측도, 관계), 사회과 4개 영역(문제해결2, 태도2), 자연과 4개 영역(이해, 탐구능력, 기구 다루기, 과학적 태도), 체육과 6개 영역(기본운동, 기계운동, 리듬표현, 게임, 계절운동, 체력), 음악과 4개 영역(가창, 기악, 창작, 감상), 미술과 5개 영역(그리기, 조소, 꾸미기, 서예, 감상)의 수행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3단계(상, 중, 하)로 분류하고 상은 3, 중은 2, 하는 1로 점수를 배정하였으며, 각 과목별 합산한 점수의 범위는 국어과, 수학과, 미술과는 최하 5점에서 최고 15점, 사회과, 자연과, 음악과는 최하 4점에서 최고 12점, 체육과는 최하 6점에서 최고 16점이다.

## 3. 자료처리

본 연구는 가설 검증을 위해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했다. 본 연구의 결과처리는 네 가지 선호경향 중 명백한 선호성을 나타내지 않는 U밴드가 있는 아동을 포함시킨 388명의 자료와 U밴드를 제외시킨 159명의 자료로 나누어 하였다.

U밴드를 포함시킨 자료는 성격유형 검사 결과 U밴드에 학생의 절반이 포함이 되어 U밴드를 제외했을 경우 이 연령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U밴드를 제외한 자료는 지표에 따른 유형특성을 뚜렷이 밝히기 위해서이다.

우선 성격유형검사와 학업성취에서 나타난 전체 분포도를 알아보기 위해 기본 통계치를 산출하였다.

연구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U밴드를 포함한 388명의 네 가지 선호경향과 학업성취와의 차이검증으로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다. 그리고, U밴드를 제외한 159명의 네 가지 선호경향과 학업성취와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했다.

연구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하여 U밴드를 포함한 388명의 기능과 학업성취와의 차이검증으로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다. 그리고, U밴드를 제외한 159명의 기능과 진로유형과의 차이검증을 위해서도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다.

연구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하여 U밴드를 포함한 388명의 기질과 학업성취와의 차이검증으로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다. 그리고, U밴드를 제외한 159명의 기질과 진로유형과의 차이검증을 위해서도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다.





## IV. 결과 및 해석

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기초가 되는 성격유형의 네 가지 지표별 선호경향과 16가지 성격유형 분포, 네 가지 기능 및 기질별 분포 그리고 교과 성적 평균을 제시한 후 각 가설을 검증하였다.

### 1. 기본 통계치

여기에서는 연구대상 전체 성격유형의 U밴드를 포함한 네 가지 지표별 선호경향과 U밴드를 제외한 각 지표별 선호경향, 16가지 성격유형 분포, 각 기능 및 기질별 분포를 제시했다.

<표IV-1> U밴드를 포함한 지표별 선호 경향

선호경향 성별	E U I			S U N			T U F			J U P			계
남학생	144	39	32	47	53	115	23	36	156	18	51	146	215
%	67.0	18.1	14.9	21.9	24.7	53.5	10.7	16.7	72.6	8.4	23.7	67.9	55.4
여학생	125	34	14	44	60	69	5	22	157	13	36	124	173
%	72.3	19.7	8.1	25.4	34.7	39.9	2.9	6.4	90.8	7.5	20.8	71.7	44.6
계	269	73	46	91	113	184	28	47	313	31	87	270	388
	69.3	18.8	11.9	23.5	29.1	47.4	7.2	12.1	80.7	8.0	22.4	69.6	100.0

<표IV-1>에서 보듯이 본 연구에서의 U밴드의 비율은 E-I 지표에서는 18.8%, S-N 지표에서는 29.1%, T-F 지표에서는 12.1%, J-P 지표에서는 22.4%이고, 한국

판 표준화에서의 U밴드 비율은 E-I 지표에서는 32.4%, S-N 지표에서는 24.8%, T-F 지표에서는 17.7%, J-P 지표에서는 19.0%이다.

선호지표로 비교하면 E-I 선호지표에서는 E 선호지표, S-N 선호지표에서는 N 선호지표, T-F 선호지표에서는 F, J-P 선호지표에서는 P 선호지표가 현저하게 많다.

전체 표집 388명중에서 본 연구를 위한 자료분석에 사용된 표집으로서, 각 지표에서 U밴드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네 가지 선호성 지표가 뚜렷이 나타난 159명의 유형 분포도는 <표IV-2>에 제시하였다.

< 표IV-2 > U밴드를 제외한 지표별 선호 경향

성별 \ 선호경향	E I		S N		T F		J P		계
	E	I	S	N	T	F	J	P	
남학생	77	11	21	67	5	83	12	76	88
%	87.5	12.5	23.9	76.1	5.7	94.3	13.6	86.4	55.3
여학생	65	6	24	47	2	69	6	65	71
%	91.5	8.5	33.8	66.2	2.8	97.2	8.5	91.5	44.7
계	142	17	45	114	7	152	18	141	159
	89.3	10.7	28.3	71.7	4.4	95.6	11.3	88.7	100.0

<표IV-2>에 의하면, E-I 지표에서는 외향형이 89.3%로 어린이 및 청소년 성격 유형검사 한국판 표준화에서 나타난 외향형(66%)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S-N 지표에서는 71.7%가 직관형으로 나타나 한국판 표준화에서 나타난 직관형(53.4%)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T-F 지표에서는 감정형의 비율이 95.6%로 한국판 표준화에서 나타난 감정형(86.5%)보다 높게 나타났다. J-P 지표에서는 인식형의 비율이 88.7%로 한국판 표준화에서 나타난 인식형(82.0%)보다 높다.

전체 표집 388명중에서 U밴드를 제외한 159명의 16가지 성격유형의 분포도를 <표IV-3>에서 제시하였다.

<표IV-3>에 의하면 아동의 76.7%가 ENFP(59.7%), ESFP(17.0%)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판 표준화에서 나타난 비율(52.7%)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표Ⅳ-3> 성별 16가지 성격유형 분포도

(%)

성격유형	성별		
	남	여	계
ISTJ	-	-	-
ISFJ	1(1.1)	-	1(0.6)
ISTP	1(1.1)	-	1(0.6)
ISFP	2(2.3)	4(5.6)	6(3.8)
INTJ	-	-	-
INFJ	-	-	-
INTP	1(1.1)	-	1(0.6)
INFP	6(6.8)	2(2.8)	8(5.0)
ESTJ	2(2.3)	-	2(1.3)
ESFJ	3(3.4)	4(5.6)	7(4.4)
ESTP	1(1.1)	-	1(0.6)
ESFP	11(12.5)	16(22.5)	27(17.0)
ENTJ	-	-	-
ENFJ	6(6.8)	2(2.8)	8(5.0)
ENTP	-	2(2.8)	2(1.3)
ENFP	54(61.4)	41(57.7)	95(59.7)
계	88(100.0)	71(100.0)	159(100.0)

기능 및 기질별 분포도는 <표Ⅳ-4>에 제시하였다.

<표Ⅳ-4> 기능 및 기질별 분포도

구 분		남	여	계
기능별	ST	4(4.5)	-	4(2.5)
	SF	17(19.3)	24(33.8)	41(25.8)
	NT	1(1.1)	2(2.8)	3(1.9)
	NF	66(75.0)	45(63.4)	111(69.8)
기질별	SP	15(17.0)	20(28.2)	35(22.0)
	SJ	6(6.8)	4(5.6)	10(6.3)
	NT	1(1.1)	2(2.8)	3(1.9)
	NF	66(75.0)	45(63.4)	111(69.8)

<표IV-4>에 의하면 기능별 분포는 NF(111명), SF(41명), ST(4명), NT(3명) 순이며, 기질별 분포는 NF(111명), SP(35명), SJ(15명), NT(3명)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표집 388명의 교과 성적의 평균값은 <표IV-5>와 같았다.

<표IV-5> 성별 교과 성적 평균

교과목 성별	국어	수학	사회	자연	체육	음악	미술
남(N=215)	11.03	10.92	8.77	8.80	13.86	8.69	10.38
여(N=173)	12.24	11.04	9.43	9.29	13.29	9.87	11.14
계(N=388)	11.57	10.97	9.06	9.02	13.61	9.22	10.72

## 2.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연구가설에 기초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1) 가설 1의 검증

가설 1. 성격유형의 네 가지 선호경향은 교과별 학업성취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외향성향(E)을 지닌 집단과 내향성향(I)을 지닌 집단간에는 교과별 학업성취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U밴드를 포함한 성격유형의 E-I 선호경향과 교과별 학업성취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IV-6>에 제시하였다.

<표IV-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음악과의 학업성취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음악과의 학업성취에서 E( $\bar{X}=9.41$ ), I( $\bar{X}=9.00$ ), U( $\bar{X}=8.67$ )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 집단의 의미 있는 차이검증을 위해 분산 분석한 결과 F값이 5.25로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IV-6> E-I 지표에 따른 성적의 차이 검증(U밴드 포함)

선호경향 교과목	E(N=269)	I(N=46)	U(N=73)	F
	$\bar{X}(SD)$	$\bar{X}(SD)$	$\bar{X}(SD)$	
국어	11.63(2.33)	11.85(1.92)	11.16(2.36)	1.58
수학	11.11(2.62)	11.09(2.55)	10.41(2.91)	2.00
사회	8.12(2.06)	9.30(1.72)	8.71(2.03)	1.52
자연	9.10(1.93)	9.00(1.53)	8.75(1.83)	0.99
체육	13.71(2.51)	13.13(2.66)	13.53(2.52)	1.07
음악	9.41(1.77)	9.00(1.75)	8.67(1.84)	5.25 **
미술	10.83(2.33)	10.70(2.27)	10.34(2.27)	1.27

(\*\* : p<.01)

U밴드를 제외한 성격유형의 E-I 선호경향과 교과별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E 선호도 집단과 I 선호도 집단의 교과별 학업성취와의 차이검증을 한 결과를 <표 IV-7>에 제시하였다.

<표 IV-7>에 나타난 바와 같이 E-I 선호경향과 교과별 학업성취의 차이검증에서는 차이가 없다.

<표 IV-7> E-I 지표에 따른 성적의 차이 검증(U밴드 제외)

선호경향 교과목	E(N=142)	I(N=17)	t
	$\bar{X}(SD)$	$\bar{X}(SD)$	
국어	11.62(2.29)	12.06(2.11)	-0.75
수학	11.18(2.59)	11.82(2.40)	-0.97
사회	9.27(2.13)	9.59(1.91)	-0.59
자연	9.16(1.92)	9.71(1.61)	-1.12
체육	13.54(2.45)	13.35(2.18)	0.30
음악	9.42(1.83)	9.82(1.38)	-0.87
미술	10.95(2.24)	11.18(2.43)	-0.39

학업성취를 총점으로 연구한 정경연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E-I지표는 학업성취와 관련이 없다고 보고되어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송종건은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허정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I 선호도가 높은 집단이 E 선호도가 높은 집단보다 성적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다.

I 선호도가 높은 집단이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E 선호도 집단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 심리적 에너지의 흐름이 밖으로 흐르느냐 아니면 안으로 흐르느냐가 학업성취에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현행 우리의 교육과정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내적 과정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이기에 내향성이 외향성보다 더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다.

1-2. 감각성향(S)을 지닌 집단과 직관성향(N)을 지닌 집단간에는 교과별 학업성취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U밴드를 포함한 성격유형의 S-N 선호경향과 교과별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IV-8>에 제시하였다.

<표IV-8> S-N 지표에 따른 성적의 차이 검증(U밴드 포함)

선호경향 교과목	S(N=91)	N(N=184)	U(N=113)	F
	$\bar{X}(SD)$	$\bar{X}(SD)$	$\bar{X}(SD)$	
국어	11.53(2.54)	11.49(2.20)	11.74(2.26)	0.46
수학	11.13(2.93)	10.97(2.65)	10.85(2.52)	0.28
사회	9.20(2.23)	8.99(2.03)	9.07(1.82)	0.33
자연	9.14(2.01)	9.01(1.83)	8.95(1.82)	0.28
체육	13.40(2.64)	13.65(2.46)	13.71(2.57)	0.44
음악	9.21(1.94)	9.15(1.89)	9.34(1.54)	0.37
미술	10.55(2.48)	10.91(2.22)	10.56(2.32)	1.13

<표IV-8>에 나타난 바와 같이 U밴드를 포함한 S-N 선호경향과 교과별 학업성취의 차이검증의 결과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U밴드를 제외한 성격유형의 S-N 선호경향과 교과별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S 선호도 집단과 N 선호도 집단의 교과별 학업성취와의 차이검증을 <표IV-9>에 제시하였다.

<표IV-9> S-N 지표에 따른 성적의 차이 검증(U밴드 제외)

선호경향 교과목	S(N=142)	N(N=17)	t
	$\bar{X}(SD)$	$\bar{X}(SD)$	
국어	11.93(2.52)	11.56(2.17)	0.93
수학	11.67(2.65)	11.09(2.53)	1.28
사회	9.69(2.04)	9.15(2.11)	1.46
자연	9.31(2.09)	9.18(1.81)	0.38
체육	13.71(2.36)	13.45(2.45)	0.62
음악	9.73(1.78)	9.36(1.79)	1.19
미술	11.00(2.47)	10.96(2.17)	0.09

<표IV-9>에 나타난 바와 같이 U밴드를 제외한 S-N 선호경향과 교과별 학업성취의 차이검증의 결과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는 정경연의 연구 결과인 S-N 지표와 학업성취와 관계가 N선호도가 높은 집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온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그러나 송종건의 중학생들의 성격유형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허정의 고등학생들의 성격유형과 학업성취와의 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보여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S-N 선호지표와 학업성취에 관한 분산 분석 결과 정보의 수집 기능에 속하는 감각과 직관의 차이가 의미 있게 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정보의 수집과 학업성취와는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사고성향(T)을 지닌 집단과 감정성향(F)을 지닌 집단간에는 교과별 학업성취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U밴드를 포함한 성격유형의 T-F 선호경향과 교과별 학업성취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IV-10>에 제시하였다.

<표IV-10> T-F 지표에 따른 성적의 차이 검증(U밴드 포함)

선호경향 교과목	T(N=28)	F(N=313)	U(N=47)	F
	$\bar{X}(SD)$	$\bar{X}(SD)$	$\bar{X}(SD)$	
국어	10.82(2.16)	11.64(2.29)	11.53(2.39)	1.65
수학	10.32(2.75)	10.94(2.63)	11.62(2.89)	2.23
사회	8.29(1.80)	9.08(2.05)	9.38(1.82)	2.70
자연	8.32(1.56)	9.07(1.87)	9.13(1.97)	2.16
체육	13.00(3.12)	13.61(2.50)	13.98(2.37)	1.31
음악	8.29(1.74)	9.33(1.80)	9.04(1.72)	4.64 *
미술	10.68(2.89)	10.75(2.24)	10.53(2.47)	0.19

(\* : p<.05)

<표IV-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음악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음악과에서 F( $\bar{X}=9.33$ ), U( $\bar{X}=9.04$ ), T( $\bar{X}=8.29$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 집단의 의미 있는 차이검증을 위해 분산 분석한 결과 F값이 4.64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U밴드를 제외한 성격유형의 T-F 선호경향과 교과별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T 선호도 집단과 F 선호도 집단의 교과별 학업성취와의 차이검증을 한 결과 <표IV-11>에 제시하였다.

<표IV-11> T-F 지표에 따른 성적의 차이검증(U밴드제외)

선호경향 교과목	T(N=7)	F(N=152)	t
	$\bar{X}(SD)$	$\bar{X}(SD)$	
국어	11.14(2.41)	11.69(2.27)	-0.62
수학	10.71(1.89)	11.28(2.60)	-0.56
사회	8.29(1.25)	9.35(2.12)	-1.31
자연	8.00(1.63)	9.28(1.89)	-1.76
체육	12.86(3.39)	13.55(2.38)	-0.74
음악	8.57(1.81)	9.51(1.78)	-1.36
미술	10.00(4.47)	11.02(2.11)	-1.17



<표IV-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U밴드를 제외한 T-F 선호경향과 교과별 학업 성취의 차이검증의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경연의 연구에서 보여진 F 선호도가 높은 집단이 T 선호도가 높은 집단보다 학업성취가 높다는 결론과는 같은 경향성을 보여주었고, 송종건과 허정의 연구와는 반대의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초등학교 때는 집단 활동을 좋아하며 집단내의 인간관계에도 관심이 많은 F 선호도 집단이 학업성취에 유리하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체계적이고 이론적이며 분석적인 T 선호도 집단이 학업성취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 판단성향(J)을 지닌 집단과 인식성향(P)을 지닌 집단간에는 교과별 학업성취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U밴드를 포함한 성격유형의 J-P 선호경향과 교과별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IV-12>에 제시하였다.

<표IV-12> J-P 지표에 따른 성적의 차이 검증(U밴드 포함)

선호경향 교과목	J(N=31)	P(N=270)	U(N=87)	F
	$\bar{X}$ (SD)	$\bar{X}$ (SD)	$\bar{X}$ (SD)	
국어	10.52(2.47)	11.83(2.16)	11.15(2.49)	6.58 **
수학	10.29(3.00)	11.22(2.55)	10.46(2.85)	3.80 *
사회	8.42(2.28)	9.30(1.94)	8.56(2.06)	6.20 **
자연	8.10(1.99)	9.26(1.78)	8.61(1.93)	8.49 **
체육	12.81(2.60)	13.61(2.46)	13.87(2.70)	2.04
음악	8.32(2.26)	9.44(1.69)	8.86(1.82)	7.76 **
미술	9.68(2.14)	10.91(2.29)	10.51(2.36)	4.52 *

(\* :  $P < .05$ , \*\* :  $p < .01$ )

<표IV-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어과, 수학과, 사회과, 자연과, 음악과, 미술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국어과에서  $P(\bar{X}=11.83)$ ,  $U(\bar{X}=11.15)$ ,  $J(\bar{X}=10.52)$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 집단의 의미 있는 차이검증을 위해 분

산 분석한 결과 F값이 6.58로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수학과에서  $P(\bar{X}=11.22)$ ,  $U(\bar{X}=10.46)$ ,  $J(\bar{X}=10.29)$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 집단의 의미 있는 차이검증을 위해 분산 분석한 결과 F값이 3.80으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사회과에서  $P(\bar{X}=9.30)$ ,  $U(\bar{X}=8.56)$ ,  $J(\bar{X}=8.42)$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 집단의 의미 있는 차이검증을 위해 분산 분석한 결과 F값이 6.20으로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자연과에서  $P(\bar{X}=9.26)$ ,  $U(\bar{X}=8.61)$ ,  $J(\bar{X}=8.10)$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 집단의 의미 있는 차이검증을 위해 분산 분석한 결과 F값이 8.49로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음악과에서  $P(\bar{X}=9.44)$ ,  $U(\bar{X}=8.86)$ ,  $J(\bar{X}=8.32)$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 집단의 의미 있는 차이검증을 위해 분산 분석한 결과 F값이 7.76으로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미술과에서  $P(\bar{X}=10.91)$ ,  $U(\bar{X}=10.51)$ ,  $J(\bar{X}=9.68)$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 집단의 의미 있는 차이검증을 위해 분산 분석한 결과 F값이 4.52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U밴드를 제외한 성격유형의 J-P 선호경향과 교과별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J 선호도 집단과 P 선호도 집단의 교과별 학업성취의 차이검증을 한 결과를 <표IV-13>에 제시하였다.

<표IV-13> J-P 지표에 따른 성적의 차이 검증(U밴드 제외)

선호경향 교과목	J(N=18)	P(N=141)	t
	$\bar{X}(SD)$	$\bar{X}(SD)$	
국어	10.61(2.34)	11.80(2.23)	-2.12 *
수학	10.78(2.69)	11.31(2.56)	-0.83
사회	8.72(2.42)	9.38(2.06)	-1.25
자연	8.28(1.99)	9.34(1.85)	-2.28 *
체육	13.06(2.84)	13.58(2.37)	-0.87
음악	8.61(2.03)	9.57(1.73)	-2.18 *
미술	9.94(2.07)	11.11(2.25)	-2.08 *

(\* :  $P < .05$ )

<표IV-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어과( $t=-2.12, p<.05$ ), 자연과( $t=-2.28, p<.05$ ), 음악과( $t=-2.18, p<.05$ ), 미술과( $t=-2.08, p<.05$ )에서 P 선호도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U밴드를 포함한 자료와 U밴드를 제외한 자료의 결과가 똑같이 P 선호도 집단이 학업성취가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경연과 송종건의 연구결과와 같으나 허정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인다.

J-P 선호지표에서는 어릴수록 규율과 질서보다는 개방적인 적응, 상황에 적응을 잘하는 성격유형이 학업성취에 도움이 되나 성장할수록 보다 규칙적이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며 끊고 맺는 것이 분명한 성격들이 학업성취에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 2) 가설 2의 검증

가설 2. 성격유형의 네 가지 기능(ST, SF, NT, NF)은 교과별 학업성취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U밴드를 포함한 성격유형의 네 가지 기능에 따라 분류된 집단과 교과별 학업성취와의 차이검증을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표IV-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과, 음악과, 미술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사회과에서 SF( $\bar{X}=9.37$ ), U( $\bar{X}=9.19$ ), NF( $\bar{X}=8.95$ ), NT( $\bar{X}=7.88$ ), ST( $\bar{X}=7.60$ ) 순으로 나타났으며 의미 있는 차이검증을 위해 분산 분석한 결과 F값이 2.71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음악과에서 SF( $\bar{X}=9.54$ ), U( $\bar{X}=9.30$ ), NF( $\bar{X}=9.14$ ), NT( $\bar{X}=8.88$ ), ST( $\bar{X}=7.30$ ) 순으로 나타났으며 의미 있는 차이검증을 위해 분산 분석한 결과 F값이 3.69로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미술과에서 NT( $\bar{X}=12.13$ ), NF( $\bar{X}=10.86$ ), SF( $\bar{X}=10.80$ ), U( $\bar{X}=10.61$ ), ST( $\bar{X}=8.60$ ) 순으로 나타났으며 의미 있는 차이검증을 위해 분산 분석한 결과 F값이 3.16으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IV-14> 기능유형에 따른 성적의 차이 검증(U밴드 포함)

기능유형 교과목	ST (n=10)	SF (n=71)	NT (n=8)	NF (n=152)	U (n=147)	F
	$\bar{X}$ (SD)	$\bar{X}$ (SD)	$\bar{X}$ (SD)	$\bar{X}$ (SD)	$\bar{X}$ (SD)	
국어	9.60 (1.78)	11.79 (2.46)	11.63 (2.20)	11.45 (2.19)	11.72 (2.31)	2.30
수학	9.60 (2.99)	11.34 (2.74)	10.50 (2.56)	10.86 (2.63)	11.03 (2.68)	1.14
사회	7.60 (1.78)	9.37 (2.29)	7.88 (1.55)	8.95 (2.08)	9.19 (1.80)	2.71 *
자연	8.00 (2.16)	9.34 (1.91)	8.75 (1.39)	8.99 (1.87)	8.99 (1.84)	1.33
체육	11.90 (2.92)	13.49 (2.53)	14.13 (3.04)	13.55 (2.48)	13.81 (2.51)	1.52
음악	7.30 (1.06)	9.54 (1.89)	8.88 (2.30)	9.14 (1.90)	9.30 (1.59)	3.69 **
미술	8.60 (2.68)	10.80 (2.29)	12.13 (2.42)	10.86 (2.18)	10.61 (2.36)	3.16 *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 : p<.05, \*\* : p<.01)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U밴드를 제외한 성격유형의 네 가지 기능에 따라 분류된 집단과 교과별 학업성취와의 차이검증을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 표IV-15 >에 제시하였다.

성격유형의 네 가지 기능에 따라 분류된 교과별 학업성취와의 차이검증을 위하여 분산분석을 한 결과는 음악과, 미술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음악과에서 NT( $\bar{X}$ =10.00), SF( $\bar{X}$ =9.95), NF( $\bar{X}$ =9.34), ST( $\bar{X}$ =7.50) 순으로 나타났으며 의미 있는 차이검증을 위해 분산 분석한 결과 F값이 3.00으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미술과에서 NT( $\bar{X}$ =14.67), SF( $\bar{X}$ =11.44), NF( $\bar{X}$ =10.86), ST( $\bar{X}$ =6.50) 순으로 나타났으며 의미 있는 차이검증을 위해 분산 분석한 결과 F값이 10.10으로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IV-15> 기능유형에 따른 성적의 차이 검증(U밴드 제외)

기능유형 교과목	ST (n=4)	SF (n=41)	NT (n=3)	NF (n=111)	F
	$\bar{X}$ (SD)	$\bar{X}$ (SD)	$\bar{X}$ (SD)	$\bar{X}$ (SD)	
국어	9.75 (2.22)	12.15 (2.47)	13.00 (1.00)	11.52 (2.18)	2.10
수학	9.50 (1.29)	11.88 (2.66)	12.33 (1.15)	11.05 (2.55)	1.86
사회	7.75 (0.50)	9.88 (2.04)	9.00 (1.73)	9.15 (2.13)	2.00
자연	7.00 (1.41)	9.54 (2.01)	9.33 (0.58)	9.18 (1.84)	2.30
체육	12.25 (3.20)	13.85 (2.26)	13.67 (4.16)	13.44 (2.42)	0.67
음악	7.50 (1.00)	9.95 (1.69)	10.00 (1.73)	9.34 (1.79)	3.00 *
미술	6.50 (1.29)	11.44 (2.09)	14.67 (0.58)	10.86 (2.11)	10.10 **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 : p<.05, \*\* : p<.01)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초등학교에서 열린교육과 수행평가의 과정에서 NT형이 선호하는 조사와 개념형 성 학습, 귀납적 추리에 의한 문제해결이나 정보처리, 조사연구, 작문 등의 과제와 SF형이 선호하는 그룹연구 실험훈련과 같은 직접적인 팀게임, 동료지도, 사회적인 학습, 발표와 의사소통에 관계된 과제가 많이 주어짐으로써 NT, SF형들이 학업성취에 유리하다. 반면에 ST형들이 선호하는 계획적인 수련학습과 훈련이 반복되는 암기식의 명령식 학습이 줄어들고 있어 ST형들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3) 가설 3의 검증

가설3. 성격유형의 네 가지 기질(SP, SJ, NT, NF)은 교과별 학업성취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U밴드를 포함한 성격유형의 네 가지 기질에 따라 분류된 집단과 교과별 학업성취와의 차이검증을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IV-16> 기질유형에 따른 성적의 차이 검증(U밴드 포함)

기질유형 교과목	SP (n=47)	SJ (n=13)	NT (n=7)	NF (n=124)	U (n=197)	F
	$\bar{X}$ (SD)	$\bar{X}$ (SD)	$\bar{X}$ (SD)	$\bar{X}$ (SD)	$\bar{X}$ (SD)	
국어	12.45 (2.24)	9.85 (2.44)	11.86 (2.27)	11.44 (2.20)	11.54 (2.30)	3.78 **
수학	11.66 (2.50)	10.23 (3.59)	10.43 (2.76)	10.98 (2.55)	10.87 (2.72)	1.17
사회	9.74 (1.95)	8.38 (2.53)	7.86 (1.68)	9.07 (2.10)	8.98 (1.93)	2.45 *
자연	9.60 (1.90)	8.08 (1.98)	8.86 (1.46)	9.10 (1.85)	8.91 (1.86)	2.21
체육	14.00 (2.07)	11.77 (2.77)	14.14 (3.29)	13.42 (2.40)	13.74 (2.63)	2.41 *
음악	9.81 (1.53)	8.08 (2.63)	9.29 (2.14)	9.22 (1.87)	9.15 (1.72)	2.67 *
미술	11.17 (2.40)	9.00 (2.12)	12.43 (2.44)	10.85 (2.13)	10.59 (2.36)	3.54 **

(\* : p<.05, \*\* : p<.01)

성격유형의 네 가지 기질에 따라 분류된 집단과 교과별 학업성취와의 차이검증을 위하여 분산분석을 한 결과는 < 표 IV-1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어과, 사회과, 체육과, 음악과, 미술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어과에서 SP( $\bar{X}$ =12.45), NT( $\bar{X}$ =11.86), U( $\bar{X}$ =11.54), NF( $\bar{X}$ =11.44), SJ( $\bar{X}$ =9.85) 순으로 나타났으며 의미 있는 차이검증을 위해 분산 분석한 결과 F값이 3.78로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사회과에서 SP( $\bar{X}$ =9.74), NF( $\bar{X}$ =9.07), U( $\bar{X}$ =8.98), SJ( $\bar{X}$ =8.38), NT( $\bar{X}$ =7.86) 순으로 나타났으며 의미 있는 차이검증을 위해 분산 분석한 결과 F값이 2.45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체육과에서 NT( $\bar{X}$ =14.14), SP( $\bar{X}$ =14.00), U( $\bar{X}$ =13.74), NF( $\bar{X}$ =13.42), SJ( $\bar{X}$ =11.77) 순으로 나타났으며 의미 있는 차이검증을 위해 분산 분석한 결과 F값이 2.41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음악과에서 SP( $\bar{X}=9.81$ ), NT( $\bar{X}=9.29$ ), NF( $\bar{X}=9.22$ ), U( $\bar{X}=9.15$ ), SJ( $\bar{X}=8.08$ ) 순으로 나타났으며 의미 있는 차이검증을 위해 분산 분석한 결과 F값이 2.67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미술과에서 NT( $\bar{X}=12.43$ ), SP( $\bar{X}=11.17$ ), NF( $\bar{X}=10.85$ ), U( $\bar{X}=10.59$ ), SJ( $\bar{X}=9.00$ ) 순으로 나타났으며 의미 있는 차이검증을 위해 분산 분석한 결과 F값이 3.54로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U밴드를 제외한 성격유형의 네 가지 기질에 따라 분류된 집단과 교과별 학업성취와의 차이검증을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IV-17>에 제시하였다.

성격유형의 네 가지 기질에 따라 분류된 집단과 교과별 학업성취와의 차이검증을 위하여 분산분석을 한 결과는 <표IV-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어과, 미술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IV-17> 기질유형에 따른 성적의 차이 검증(U밴드 제외)

기능유형 교과목	SP (n=35)	SJ (n=10)	NT (n=3)	NF (n=111)	F
	$\bar{X}$ (SD)	$\bar{X}$ (SD)	$\bar{X}$ (SD)	$\bar{X}$ (SD)	
국어	12.43 (2.38)	10.20 (2.30)	13.00 (1.00)	11.52 (2.18)	3.35 *
수학	11.74 (2.51)	11.40 (3.20)	12.33 (1.15)	11.05 (2.55)	0.83
사회	9.91 (1.90)	8.90 (2.42)	9.00 (1.73)	9.15 (2.13)	1.33
자연	9.60 (2.00)	8.30 (2.16)	9.33 (0.58)	9.18 (1.84)	1.29
체육	14.11 (2.04)	12.30 (2.95)	13.67 (4.16)	13.4 4(2.42)	1.61
음악	10.03 (1.40)	8.70 (2.54)	10.00 (1.73)	9.34 (1.79)	2.08
미술	11.46 (2.38)	9.40 (2.17)	14.67 (0.58)	10.86 (2.11)	5.34 **

(\* :  $p<.05$ , \*\* :  $p<.01$ )

국어과에서 NT( $\bar{X}=13.00$ ), SP( $\bar{X}=12.43$ ), NF( $\bar{X}=11.52$ ), SJ( $\bar{X}=10.20$ ) 순으로 나타났으며 의미 있는 차이검증을 위해 분산 분석한 결과 F값이 3.35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미술과에서 NT( $\bar{X}=14.67$ ), SP( $\bar{X}=11.46$ ), NF( $\bar{X}=10.86$ ), SJ( $\bar{X}=9.40$ ) 순으로 나타났으며 의미 있는 차이검증을 위해 분산 분석한 결과 F값이 5.34로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네 가지 기질에 따라 분류된 집단들의 학습양식과 현재 초등학교에서 행해지는 열린교육, 수행평가와 비교해 보았을 때, 논리적이고 실험을 통해 비평할 수 있으며 사고에 숨겨진 가설을 조사하는 학습, 아이디어 비교, 정보를 찾는 과제, 장기간의 프로젝트를 선호하는 NT형들과 시청각 자료나 도구를 사용한 학습, 자유로운 토론을 선호하는 SP형들에게 유리하다. 반면에 잘 구조화된 과제를 완성하고, 반복과 훈련, 일관성과 명확한 절차가 있는 학습에서 잘 적응하며 학급규칙을 잘 따르는 SJ형들에게는 창조적이고, 독창적이고, 추론하는 학습이나 과제, 계획과 준비없이 토론이 많아지는 점에서 학업성취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 V. 요약 및 결론

### 1.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 및 청소년 성격유형검사(MMTIC)에 따른 학생들의 성격유형과 교과별 학업성취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의 성격적 특성을 이해하고 성격유형에 따른 교과지도, 생활지도에 도움을 주고, 진로지도의 자료를 교사, 학부모, 학생들에게 제공하며 학생들에게 성격유형에 따른 학습양식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문헌을 통한 이론적 배경과 관련되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성격유형의 네 가지 선호경향(E-I, S-N, T-F, J-P)은 교과별(국어, 수학, 사회, 자연, 체육, 음악, 미술) 학업성취에서 차이가 나는가?

둘째, 성격유형의 네 가지 기능(ST, SF, NT, NF)은 교과별(국어, 수학, 사회, 자연, 체육, 음악, 미술) 학업성취에서 차이가 나는가?

셋째, 성격유형의 네 가지 기질(SP, SJ, NT, NF)은 교과별(국어, 수학, 사회, 자연, 체육, 음악, 미술) 학업성취에서 차이가 나는가?

이상과 같은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성격유형의 네 가지 선호경향은 교과별 학업성취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외향성향(E)을 지닌 집단과 내향성향(I)을 지닌 집단간에는 교과별 학업성취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2. 감각성향(S)을 지닌 집단과 직관성향(N)을 지닌 집단간에는 교과별 학업성취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3. 사고성향(T)을 지닌 집단과 감정성향(F)을 지닌 집단간에는 교과별 학업성취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4. 판단성향(J)을 지닌 집단과 인식성향(P)을 지닌 집단간에는 교과별 학업성취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성격유형의 네 가지 기능(ST, SF, NT, NF)은 교과별 학업성취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 네 가지 기능에 따라 분류된 집단(ST, SF, NT, NF)간에는 교과별 학업성취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성격유형의 네 가지 기질(SP, SJ, NT, NF)은 교과별 학업성취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3-1. 네 가지 기질에 따라 분류된 집단(SP, SJ, NT, NF)간에는 교과별 학업성취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위의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주 시내 S초등학교 4학년 아동 388명(남215명, 여173명)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아동의 성격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MMTIC 검사를 본 연구자가 직접 연구대상자에게 검사를 실시하였고 교과별 학업성취는 S초등학교의 수행평가 계획에 따른 2학기의 결과를 영역별로 3단계로 분류하여 과목별 합산한 점수를 연구의 변인으로 정했다.

자료처리는 네 가지 선호경향 중 명백한 선호성을 나타내지 않는 U밴드를 포함시킨 전체 388명의 자료와 U밴드를 제외시킨 159명의 자료로 나누어 SPSS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검증,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네 가지 선호경향에 따른 교과별 학업성취의 차이검증에서 E-I 지표에서 U밴드를 포함한 자료에서는 음악과의 학업성취에서 E( $\bar{X}=9.41$ ), I( $\bar{X}=9.00$ ), U( $\bar{X}=8.67$ ) 순으로( $F=5.25, p<.01$ )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U밴드를 제외한 자료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S-N지표에서 U밴드를 포함한 자료와 U밴드를 제외한 자료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F지표에서 U밴드를 포함한 자료에서는 음악과에서 F( $\bar{X}=9.33$ ), U( $\bar{X}=9.04$ ), T( $\bar{X}=8.29$ )의 순으로( $F=4.64, p<.05$ )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U밴드를 제외한 자료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J-P지표에서 U밴드를 포함한 자료에서는 국어과에서 P( $\bar{X}=11.83$ ), U( $\bar{X}=11.15$ ), J( $\bar{X}=10.52$ ) 순으로( $F=6.58, p<.01$ ), 수학과에서 P( $\bar{X}=11.22$ ), U( $\bar{X}=10.46$ ), J( $\bar{X}=10.29$ ) 순으로( $F=3.80, p<.05$ ), 사회과에서 P( $\bar{X}=9.30$ ), U( $\bar{X}$

=8.56), J( $\bar{X}$ =8.42) 순으로(F=6.20,  $p<.01$ ), 자연과에서 P( $\bar{X}$ =9.26), U( $\bar{X}$ =8.61), J( $\bar{X}$ =8.10) 순으로(F=8.49,  $p<.01$ ) 음악과에서 P( $\bar{X}$ =9.44), U( $\bar{X}$ =8.86), J( $\bar{X}$ =8.32) 순으로(F=7.76,  $p<.01$ ), 미술과에서 P( $\bar{X}$ =10.91), U( $\bar{X}$ =10.51), J( $\bar{X}$ =9.68) 순으로(F=4.52,  $p<.05$ )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U밴드를 제외한 자료에서는 P선호도 집단이 국어과( $t=-2.12$ ,  $p<.05$ ), 자연과( $t=-2.28$ ,  $p<.05$ ), 음악과( $t=-2.18$ ,  $p<.05$ ), 미술과( $t=-2.08$ ,  $p<.05$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네 가지 기능(ST, SF, NT, NF)에 따른 교과별 학업성취의 차이검증에서 U밴드를 포함한 자료에서는 사회과에서 SF( $\bar{X}$ =9.37), U( $\bar{X}$ =9.19), NF( $\bar{X}$ =8.95), NT( $\bar{X}$ =7.88), ST( $\bar{X}$ =7.60) 순으로(F=2.71,  $p<.05$ ), 음악과에서 SF( $\bar{X}$ =9.54), U( $\bar{X}$ =9.30), NF( $\bar{X}$ =9.14), NT( $\bar{X}$ =8.88), ST( $\bar{X}$ =7.30) 순으로(F=3.69,  $p<.01$ ), 미술과에서 NT( $\bar{X}$ =12.13), NF( $\bar{X}$ =10.86), SF( $\bar{X}$ =10.80), U( $\bar{X}$ =10.61), ST( $\bar{X}$ =8.60) 순으로(F=3.16,  $p<.05$ )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U밴드를 제외한 자료에서는 음악과에서 NT( $\bar{X}$ =10.00), SF( $\bar{X}$ =9.95), NF( $\bar{X}$ =9.34), ST( $\bar{X}$ =7.50) 순으로(F=3.00,  $p<.05$ ), 미술과에서 NT( $\bar{X}$ =14.67), SF( $\bar{X}$ =11.44), NF( $\bar{X}$ =10.86), ST( $\bar{X}$ =6.50) 순으로(F=10.10,  $p<.01$ )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셋째, 네 가지 기질(SP, SJ, NT, NF)에 따른 교과별 학업성취의 차이검증에서 U밴드를 포함한 자료에서는 국어과에서 SP( $\bar{X}$ =12.45), NT( $\bar{X}$ =11.86), U( $\bar{X}$ =11.54), NF( $\bar{X}$ =11.44), SJ( $\bar{X}$ =9.85) 순으로(F=3.78,  $p<.01$ ), 사회과에서 SP( $\bar{X}$ =9.74), NF( $\bar{X}$ =9.07), U( $\bar{X}$ =8.98), SJ( $\bar{X}$ =8.38), NT( $\bar{X}$ =7.86) 순으로(F=2.45,  $p<.05$ ), 체육과에서 NT( $\bar{X}$ =14.14), SP( $\bar{X}$ =14.00), U( $\bar{X}$ =13.74), NF( $\bar{X}$ =13.42), SJ( $\bar{X}$ =11.77) 순으로(F=2.41,  $p<.05$ ), 음악과에서 SP( $\bar{X}$ =9.81), NT( $\bar{X}$ =9.29), NF( $\bar{X}$ =9.22), U( $\bar{X}$ =9.15), SJ( $\bar{X}$ =8.08) 순으로(F=2.67,  $p<.05$ ), 미술과에서 NT( $\bar{X}$ =12.43), SP( $\bar{X}$ =11.17), NF( $\bar{X}$ =10.85), U( $\bar{X}$ =10.59), SJ( $\bar{X}$ =9.00) 순으로(F=3.54,  $p<.01$ )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U밴드를 제외한 자료에서는 국어과에서 NT( $\bar{X}$ =13.00), SP( $\bar{X}$ =12.43), NF( $\bar{X}$ =11.52), SJ( $\bar{X}$ =10.20) 순으로(F=3.35,  $p<.05$ ), 미술과에서 NT( $\bar{X}$ =14.67), SP( $\bar{X}$ =11.46), NF( $\bar{X}$ =10.86), SJ( $\bar{X}$ =9.40) 순으로(F=5.34,  $p<.01$ )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성격유형에 따라 교과별 학업성취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문제가  
증명이 되었다.

## 2. 결론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했던 연구문제에 대한 결론  
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격유형의 네 가지 선호경향(E-I, S-N, T-F, J-P)에 따라 교과별 학업성  
취를 살펴본 결과 E-I, S-N, T-F 선호경향에서는 U밴드를 포함했을 때와 제외했  
을 때 공통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교과는 없었다. 그렇지만 판단성향(J) 집  
단과 인식성향(P) 집단에서는 U밴드 포함했을 때는 국어, 수학, 사회, 자연, 음악,  
미술 등 6개 교과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U밴드를 제외했을 때는 국어, 자  
연, 음악, 미술 등 4개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므로 교과별 학업성  
취는 성격유형의 네 가지 선호경향 중 J-P 선호경향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둘째, 성격유형의 네 가지 기능(ST, SF, NT, NF)에 따라 교과별 학업성취를 살  
펴본 결과 U밴드를 포함했을 때는 사회, 음악, 미술 등 3개 교과에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였고, U밴드를 제외했을 때는 음악, 미술 2개 교과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였다. 그러므로 네 가지 기능에 따라서 교과별 학업성취가 다르다.

셋째, 성격유형의 네 가지 기질(SP, SJ, NT, NF)에 따라 교과별 학업성취를 살  
펴본 결과 U밴드를 포함했을 때는 국어, 사회, 체육, 음악, 미술 등 5개 교과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U밴드를 제외했을 때는 국어, 미술 2개 교과에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므로 네 가지 기질에 따라서 교과별 학업성취가 다르다.

종합적으로 MMTIC 성격유형에 따라 교과별 학업성취가 다르게 나타났다.

## 3. 제언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 학업성취의 향상을 위해서 아동의 성격유형에 따른 학습양식을 탐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동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MMTIC을 활용하여 교사가 어린이의 성격유형을 파악하고 교사 자신의 성격유형이 지향하는 교수방법만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의 성격유형에 맞는 교수방법이나 학습양식을 살려 최대한의 학습 효과를 교육의 장에서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U밴드를 포함했을 경우와 제외시켰을 경우의 결과가 비슷하므로 네 가지 선호경향 모두가 뚜렷하지 않은 아동도 성격유형에 따른 학습양식을 탐색하는데 포함해야 한다. 성격유형에서 뚜렷한 선호경향을 보이지 않는 U밴드가 네 가지 선호경향 모두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 두 개정도 나타나기 때문에 뚜렷하게 나타난 선호경향을 중심으로 학습양식을 탐색하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특정한 성격유형과 교과별 학업성취는 높은 관련이 나타나므로 성격유형에 따라 교과별 학업성취도를 예견할 수 있다는 것과 더불어 특정한 성격유형을 개발 육성함으로써 특정 교과별 학업 성취를 높일 수 있다는 교육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하여 앞으로의 연구에 몇 가지 제언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성격유형에서 나타나는 교과별 학업성취의 차이를 교수-학습 전략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하여 교사와 학생들 개개인의 특성과 능력을 잘 활용하게 하는 측면의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성격유형에 따른 교과별 학업성취를 살펴보았는데 수행평가가 정착되어가면서 각 영역에 따른 성취도를 추가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내용을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상호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교육부(1998).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국어 6-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_\_\_\_\_ (1999).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수학 6-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_\_\_\_\_ (1997).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사회 6-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_\_\_\_\_ (1997).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자연 6-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_\_\_\_\_ (1999).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체육 6」,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_\_\_\_\_ (1997).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음악 6」,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_\_\_\_\_ (1999).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미술 6」,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김명식(1992). Type A/B와 MBTI 성격유형과의 상관관계,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김윤선(1994). 아동의 인지양식과 귀인성향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용희(1996). MMTIC에 대한 아동의 성격유형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정택·심혜숙(1990). “성격유형검사(MBTI)의 한국표준화에 관한 일 연구”, 「한국심리유형학회지 : 상담과 심리치료」.
- \_\_\_\_\_ (1993). “어린이 심리유형검사(MMTIC)의 한국표준화에 관한 일 연구”, 「한국심리유형학회지」.
- \_\_\_\_\_ (1994). 「MBTI 적용 상담사례집 1」,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_\_\_\_\_ (1995). 「MBTI 안내서」,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_\_\_\_\_ (1995). 「어린이 및 청소년 성격유형검사(MMTIC) 안내서」,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_\_\_\_\_ (1995). 「MBTI 관계 논문 요약집」,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_\_\_\_\_ (1995). 「MMTIC과 어린이 및 청소년의 이해」,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김정택·심혜숙·임승환 역(1993). 「나의 모습 나의 얼굴」,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김정택 · 심혜숙 · 제석봉 역(1995). 「MBTI 개발과 활용」,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김혜경(1996). 성격유형과 학습기술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 류영옥(1994). C-MBTI를 활용한 집단진로상담이 아동의 진로성숙 및 자아 개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 송종건(1994). 청소년의 성격유형과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경희(1985). 성격특성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윤혜란(1993). 학습우수아와 부진아의 시험불안과 성격특성,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부영(1991). 「분석심리학」, 일조각.
- 이재갑(1993). 심리유형과 심리장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이현수(1989). 「성격과 개인차의 심리학」, 우성출판사.
- 정경연(1994). C-MBTI에 나타난 국민학생의 성격유형과 지능 및 학업성취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국심리유형학회(1997), 「한국심리유형학회지」, 제4권.
- 허선자(1995). 청소년 심리유형에 따른 직업흥미와 지각된 유능감,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허 정(1991). 고등학교 행정의 실적평가에 관한 연구 - Carl G. Jung의 성격유형론을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 홍지영(1995). 청소년의 성격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 Fourqrean, J., Meisgeier, C., Swank, P., & Murphy, E.(1988), "Investig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Ability and Type Preference in Children", Journal of Psychological Type, Vol. 16.
- Hart, H.(1990), "Psychological Types of Students Attending a High school Credit Remediation Program for Students At Risk of not Graduation", Journal of Psychological Type, Vol. 22.
- Myers, I. B. & McCauly, M. H.(1985), Manual : A Guide to the Development

and Use of the MBTI, Palo Alto CA : CPP.

Keith Golay(1982), Learning Patterns and Temperament Styles, Palo Alto, CA.

Lathey, J.(1991), "Temperament Style as a Predictor of Academic Achievement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Psychological Type, Vol. 22.

Lawrence(1982), People Type & Tiger Stripes : A Practical Guide to Learning Styles, Gainesville, Fla : CAPT.

Meisgeier, C., Murphy, E., & Swank, P.(1987), "The Development of the Murphy-Meisgeier Type Indicator for Children", Journal of Psychological Type, Vol. 13.

Schurr, Terry, K., Ruble, V. (1986),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and First-Year College Achievement : A Look Beyond Aptitude Test Result", Journal of Psychological Type, Vol. 12.





<Abstract>

## The Relationships between MMTIC Character Types & Scholastic Achievements\*

Kim, Nam-gyu

Counseling Psychology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Tae-soo

Students have inborn preference dispositions and each subject has its own characteristics different from those of other subjects. On the contrary, primary school teachers have paid little attention to the relationships between preference dispositions and subject characteristic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losely the relationships between character types caused by MMTIC and scholastic achievements of each subject.

The following tasks have been given to carry out this purpose.

First, does the four preference dispositions of character types(E-I, S-N, T-F, J-P) make any difference in the scholastic achievements of each subject(Korean, mathematics, social studies, science, gymnastics, music and fine arts)?

Second, does the four functions of character types(ST, SF, NT, NF) make any difference in the scholastic achievements of each subject(Korean, mathematics, social studies, science, gymnastics, music and fine arts)?

Third, does the four tempers of character types(SP, SJ, NT, NF) make any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9.

difference in the scholastic achievements of each subject(Korean, mathematics, social studies, science, gymnastics, music and fine arts)?

The fourth grade 388 students that went to S Primary School in Cheju City were made the subjects of the basic research of the above tasks. Students' character types are based on the test of MMTIC, and scholastic achievements of each subject are based on the results of performance tests. Data processes are divided into two. The first is composed of the whole 388 students showing U-band and the second, of 159 students who do not show U-band. U-band does not represent any obvious preference disposition.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basic descriptive statistics, t-examination, ANOVA using by SPSS/PC+.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the scholastic achievements caused by the four preference dispositions( E-I, S-N, T-F, and J-P) show E-I, S-N and T-F preference dispositions made no meaningful difference in any subject, both when including U-band and not including it. On the contrary, when including U-band, the judgment disposition group(J) and the perception disposition group(P) made a meaningful difference in 6 subjects; Korean, mathematics, social studies, science, music and fine arts. When excluding, they made a meaningful difference in 4 subjects; Korean, science, music and fine arts. Therefore, J-P of the four preference dispositions has the most influence on the scholastic achievements of each subject.

Secon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cholastic achievements caused by the four functions(ST, SF, NT, and NF), when including U-band, they made a meaningful difference in three subjects; social studies, music and fine arts, but when excluding, they made a meaningful difference in two subjects; music and fine arts. Therefore, the scholastic achievements are different functions.

Third, the results of the scholastic achievements caused by the four tempers(SP, SJ, NT, NF) show that when including U-band, they made a meaningful

difference in the five subjects; Korean, social studies, gymnastics, music and fine arts, but when excluding U-band, they made a meaningful difference in the two subjects; Korean and fine arts. Therefore, the scholastic achievements are different tempers

To conclude, character type MMTIC has an effect on the scholastic achievements of each subject.



## 〈 부 록 〉

< 부록 1 > 어린이 및 청소년 성격유형 검사지

< 부록 2 > 교과별 수행평가내용



< 부록 1 >

어린이 및 청소년 성격유형 검사지

---

이 검사지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과 관계된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질문들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행동과 비슷한 것들에 대해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대답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여러분이 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알기 원하는 것이므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대답하기를 원하는 대로 대답하지는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시오. 여기에서는 맞는 답이나 틀린 답이 없습니다.

각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오직 하나의 답만을 골라 준비되어 있는 답안지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두 답 모두 여러분과 비슷하다면 이 중 여러분이 더 좋아하는 것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1999년 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김남규 드림

---

< 제 1 부 >

- 
1. 나는 새학년이 되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일이  
㉠ 재미있다.  
㉡ 어렵다.
2. 어떤 특별활동반에 들어갔을 때, 나는  
㉠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일이 신난다.  
㉡ 그 반에 있는 친구들과 어떻게 지낼까 걱정된다.
- 
3. 어느 쪽을 더 좋아하나요?  
㉠ 나는 우리편이 게임을 잘해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 나는 우리편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4. 어느 쪽을 더 좋아하나요?  
㉠ 장난감, 라디오, 컴퓨터 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뜯어서 알아보는 일  
㉡ 금붕어나 강아지를 돌보는 일
- 
5. 나는 친구들에게?  
㉠ 내가 직접 보고 만지고 들은 것에 대해 얘기하길 좋아한다.  
㉡ 내가 상상으로 생각한 것을 얘기하기를 좋아한다.
6. 어떤 이야기를 더 좋아하나요?  
㉠ 실제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 상상으로 지어낸 이야기들
- 
7. 새학년이 되어서 반이 바뀌었을 때 나는?  
㉠ 누구한테든 내가 먼저 말을 건넨다.  
㉡ 누가 먼저 나한테 말을 걸때까지 기다린다.
8. 나는?  
㉠ 많은 친구들을 원한다.  
㉡ 가까운 친구 몇 명만 원한다.
- 
9. 나에게 더 재미있는 일은?  
㉠ 여럿이 함께 일하는 것이다.  
㉡ 나 혼자 나의 일을 하는 것이다.
10. 어느 쪽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나요?  
㉠ 불공평한 것  
㉡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 
11.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내가 틀리지 않고 맞을 때  
㉡ 내가 친구를 기쁘게 해줄 때
12. 나는?  
㉠ 공평한 사람이 되고 싶다.  
㉡ 친절할 사람이 되고 싶다.
-

---

13. 나는?

- ㉠ 내가 할 줄 아는 놀이를 하고 노는 것이 좋다.
- ㉡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서 노는 것이 좋다.

14. 나는 게임이나 공작을 할 때?

- ㉠ 전에 배웠던 대로하는 것이 편하다.
- ㉡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내서 해볼 때 더 재미있다.

---

15.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 학생들에게 무엇을 공부해야 한다고 말해 주어야 한다.
- ㉡ 학생들 스스로 선택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16. 나는?

- ㉠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곧바로 아는 편이다.
- ㉡ 곧바로 알기보다 어떻게 해볼까 하고 나의 상상을 먼저 사용하는 편이다.

---

17. 어느 것을 더 싫어하나요?

- ㉠ 무슨 일이 일어났으나 이유를 모를 때
- ㉡ 친구가 화난 말투로 나를 대할 때

18. 도둑질하는 학생에 대해 나는?

- ㉠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 도둑질하지 않도록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19. 나는?

- ㉠ 나를 위해서 이미 결정된 일을 좋아한다.
- ㉡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좋아한다.

20. 나는?

- ㉠ 내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논다.
- ㉡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먼저 재미있게 놀고 난 후에 해도 괜찮다.

---

21. 만약 우리 반에 담임 선생님 대신으로 온 새 선생님께서, 오늘 시간표를 누가 좀 설명해 주길 바란다면?

- ㉠ 내가 해 드릴 수 있으면 기쁘겠다.
- ㉡ 나 말고 다른 친구가 말씀드려 주었으면 좋겠다.

22. 경주로 여행하려고 할 때

- ㉠ 나는 경주에 대해 주로 많이 생각한다.
- ㉡ 나는 경주 말고도 이곳저곳 여러곳을 상상하고 생각해본다.

---

23. 나는 선생님들이?

- ㉠ 수업 계획에 따라 수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에 맞추어 조금씩 바꾸어서 수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4. 어느 쪽이 더 재미있나요?

- ㉠ 친구들과 함께 무엇인가 하는 일
  - ㉡ 내가 좋아하는 일을 혼자 하는 것
-

- 
25. 어느 것을 더 좋아하나요?  
 ㉠ 똑바로 끝은 선  
 ㉡ 둥글둥글한 원
26. 나에게 어느 일이 더 쉬운가요?  
 ㉠ 가족 한사람 한사람의 생일 날짜를 말하는 것  
 ㉡ 생일 카드를 그리는 것
- 
27. 학교에서 내어 주는 숙제는?  
 ㉠ 하기 쉽게 잘 짜여진 숙제를 나는 좋아한다.  
 ㉡ 새롭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숙제를 나는 좋아한다.
28. 가장 좋은 생각을 떠올리는데 어느 쪽이 더 도움이 되나요?  
 ㉠ 무엇을 보면서 생각할 때  
 ㉡ 무엇을 보지 않고 눈을 감고 생각할 때
- 
29. 어느 쪽이 더 나은가요?  
 ㉠ 친구에게 공평한 것  
 ㉡ 친구에게 친절할 것
30. 독서할 때 나는?  
 ㉠ 내가 좋아하는 책은 읽은 것을 또 읽는다.  
 ㉡ 새로운 다른 책을 읽는다.
- 
31. 나는?  
 ㉠ 많은 친구들에게 얘기하길 좋아한다.  
 ㉡ 친한 친구들에게만 얘기하길 좋아한다.
32. 달리기에서 이겼을 때 나는?  
 ㉠ 기분이 아주 좋다.  
 ㉡ 기분이 좋는데 진 사람은 기분이 어떨까 생각한다.
- 
33. 어떤 선생님을 더 좋아하나요?  
 ㉠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할지 알려주는 선생님  
 ㉡ 학생 스스로 선택하도록 맡기는 선생님
34. 공부를 못하는 학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35. 선생님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혼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  
 ㉡ 학생들과 얘기를 나누어야 한다.
-



< 제 2 부 >

36. 한 친구가 너무 느려서 여러분의 운동팀에 낄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나요?  
㉠ 그 친구에게 느려서 끼워줄 수 없다는 얘기를 해준다.  
㉡ 다른 이유를 말해 주면서 우리 팀에 끼워 줄 수 없다고 말해준다.
- 
37. 이야기를 만들어 낼 때 좋은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나요?  
㉠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 속에서 얻는다.  
㉡ 상상을 해보면 얻어진다.
38. 둘 중 어느 것이 더 재미있나요?  
㉠ 산수 문제를 푸는 일  
㉡ 친구에게 책임기를 도와주는 일
- 
39. 우리편이 졌을 때 어떻게 하나요?  
㉠ 다음 번에 이기도록 계획을 짠다.  
㉡ 먼저 우리편 사람들의 기분을 돌구도록 노력한다.
40.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아이들이 해야 할 일을 말해 주어야 한다.  
㉡ 아이들 스스로의 생각을 말하도록 말걸어야 한다.
- 
41. 갑자기 어려운 일에 부딪치면 나는?  
㉠ 하던 일도 잘 못한다.  
㉡ 어려워도 더 재미있게 일한다.
42. 나는?  
㉠ 어떤 물건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움직이는지 알아내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다.  
㉡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생각해내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다.
- 
43. 어느 쪽을 더 좋아하나요?  
㉠ 그려진 그림에 색칠하기  
㉡ 이야기 지어내기
44. 그림조각(피즐) 맞추기를 할 때  
㉠ 한쪽 부분부터 차근차근히 맞추어 갈 때 더 잘한다.  
㉡ 그림의 여기저기를 맞추어 보면서 들어갈 때 더 잘한다.
- 
45. 좋은 일이 생겼을 때나, 화가 나는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나요?  
㉠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한다.  
㉡ 내 기분을 마음속에 간직한다.
46.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것은?  
㉠ 신난다.  
㉡ 처음에 어색하다.
-

- 
47. 어느 것을 더 좋아하나요?  
 ㉠ 짜여진 계획을 실천하는 일  
 ㉡ 새로운 계획을 짜는 일
48. 사람들은?  
 ㉠ 질서에 따라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자신들이 선택하는 방법대로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49. 게임 할 때 규칙은?  
 ㉠ 바뀌어서는 안 된다.  
 ㉡ 필요할 때 바뀌어야 한다.
50. 어느 쪽을 더 좋아하나요?  
 ㉠ 실제 일어난 일  
 ㉡ 일어날 뻔한 일
- 
51. 나는?  
 ㉠ 특별한 일은 미리 짜두는 것이 더 좋다.  
 ㉡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것이 더 좋다.
52. 학교과제를 할 때 어느 쪽을 더 좋아하나요?  
 ㉠ 친구들과 같이하는 것  
 ㉡ 혼자 하는 것
- 
53. 어느 쪽을 더 좋아하나요?  
 ㉠ 맡겨진 일을 잘 하는 것  
 ㉡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것
54. 나는?  
 ㉠ 사람들은 규칙을 알 때 일을 더 잘한다고 생각한다.  
 ㉡ 사람들은 누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줄 때 일을 더 잘한다고 생각한다.
- 
55. 내가 자전거를 탈 때는?  
 ㉠ 어디로 갈지 미리 생각하고 탄다.  
 ㉡ 그냥 주위를 휩 돌아온다.
56. 잘 알지 못하는 친구들과 모였을 때 어떻게 하나요?  
 ㉠ 그 친구들에게 말을 걸고 얘기도 나눈다.  
 ㉡ 그 친구들이 먼저 나에게 말을 걸도록 기다린다.
- 
57. 어느 쪽을 더 좋아하나요?  
 ㉠ 내가 정리정돈을 하는 깨끗한 방  
 ㉡ 내가 마음대로 흩어놓을 수 있는 방
58. 어느 쪽을 더 좋아하나요?  
 ㉠ 어른들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일을 해나가는 일  
 ㉡ 새로운 방법으로 일을 해나가는 일
-

---

59. 공부할 때?

- ㉠ 친구들과 함께 하길 좋아한다.
- ㉡ 혼자서 하면 더 잘 된다.

60. 어느 쪽을 더 원하나요?

- ㉠ 누구나 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
- ㉡ 해보지 않은 새로운 일을 해보는 일

---

61. 일을 할 때 어느 쪽을 더 좋아하나요?

- ㉠ 사람들을 모으고 시키는 일
- ㉡ 사람들이 재미있게 일하도록 도우는 일

62. 나는?

- ㉠ 사람들은 먼저 일하고 놀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 먼저 놀고, 그 다음에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63. 친구들과 게임할 때, 장난감 공이 하나 필요하다면?

- ㉠ 하나 구하도록 노력한다.
- ㉡ 신문지 같은 것으로 비슷하게 만들어 우선 논다.

64. 어느 쪽을 더 좋아하나요?

- ㉠ 내가 손으로 직접 무엇을 만드는 일
- ㉡ 앉아서 상상해 보고 공상해 보는 일

---

65. 동굴을 생각하면?

- ㉠ 어둡침침하고 무서워 보인다.
- ㉡ 뭔가 알지 못하는 흥미로운 세계를 안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66. 나는?

- ㉠ 다른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대체로 같이 좋아한다.
- ㉡ 다른 아이들이 싫어하는 것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

---

67. 생일 파티를 할 때

- ㉠ 나는 먼저 계획을 세운다.
- ㉡ 나는 계획을 세우기 전에 친구들이 즐겁게 놀다 갔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 부터 가진다.

68. 주위에 친구들이 많으면

- ㉠ 얘기할 사람이 많아서 좋다.
- ㉡ 처음엔 좋으나 좀 있으면 피곤해진다.

---

69. 어느 쪽을 더 좋아하나요?

- ㉠ 위인전이나 역사만화
- ㉡ 공상과학 이야기

70. 어른들에게 자기자신의 이름을 말씀드리는 일은

- ㉠ 쉬운 편이다.
  - ㉡ 어렵고 쑥스러운 편이다.
-

4학년 1학기 국어과 수행평가 내용

영역	관련단원	평가주제	평가목표	평가유형
읽기	4-1-2	동시낭송하기	글감과 중심생각을 알아보며 시를 읽을 수 있다.	구술법 관찰법
말하기	4-1-3	대상과 상황에 맞게 말하기	대상과 상황에 맞게 소개하는 말을 할 수 있다.	관찰평가
언어 문학	4-1-7	책 속의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	책 속의 주인공에게 높임말을 사용하여 편지를 쓸 수 있다.	서술형 논술형
읽기	4-1-8	상황과 성격을 파악하여 연극하기	글의 내용을 알고 글의 성격이나 장면, 분위기를 파악하여 극본을 연극으로 꾸며 공연할 수 있다.	관찰평가
듣기	4-1-9	이야기를 듣고 중심내용을 알아보기	이야기를 듣고 중심내용과 세부내용을 구분하며 중심내용을 요약하여 말할 수 있다.	질문지법
언어 문학	4-1-12	짧은글 쓰기	낱말의 뜻을 정확히 알고 낱말의 짜임을 이해하며 짧은 글을 쓸 수 있다.	실기평가
쓰기	4-1-13	묘사하는 글 쓰기	사물의 여러 특징을 살펴 사물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글을 쓸 수 있다.	보고서
말하기	4-1-14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게 말하기	일이나 사건의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게 내용을 조직하여 말할 수 있다.	관찰평가
쓰기	4-1-16	일기 쓰기	겪은 일 중에서 글감을 찾고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알맞게 글로 표현 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

### 4학년 1학기 수학과 수행평가 내용

영역	관련단원	평가주제	평가목표	평가유형
수	2. 덧셈과 뺄셈	자연수의 덧셈, 뺄셈하기	자연수의 덧셈과 뺄셈을 완성하고 계산을 능숙하게 할 수 있다.	서술형평가
	8. 분수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분수로 나타내기	똑같이 나누어진 양의 부분과 전체와의 관계를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서술형평가
연산	4. 곱셈	세 자리 수 × 세 자리 수의 계산하기	세자리수×세자리수의 계산원리와 형식을 이해하고 그 곱을 구할 수 있다.	서술형평가
	6. 나눗셈	나눗셈 문장제 문제 해결하기	문제의 뜻을 파악하여 나눗셈이 적용되는 문장제 문제를 풀 수 있다.	서술형평가
측도	7. 수직과 평행	수선과 평행선 긋기	수직과 평행선을 이해하고 수선과 평행선을 그을 수 있다.	실기평가
	3. 시간과 각도	초 단위의 계산	초 단위의 계산 형식을 알고 계산할 수 있다.	서술형평가
관계	9. 여러 가지 문제	각의 합과 차	주어진 각도의 합과 차를 구하고 시계의 분침과 시침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실기평가
	9. 여러 가지 문제	수직과 수평의 관계	삼각자를 이용하여 수직 또는 수평관계에 있는 두 선분을 찾을 수 있다.	실기평가

### 4학년 1학기 사회과 수행평가 내용

영역	관련단원	평가주제	평가목표	평가유형
태도	1. 제주도의 모습	제주도를 소개하는 글쓰기	제주도의 전반적인 면을 알고 소개하는 글을 쓸 수 있다.	편지글 서술형
문제해결	2. 제주도의 내력	제주도에 관한 기사 스크랩하기	제주도의 자연환경, 시설, 문화재 등의 사진, 기사를 모아 스크랩 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
문제해결	3. 살기좋은 제주도	우리 학교 전출입 자 우리 학교 전출입 상황을 조사하고 원인 알기	우리 학교 전출입 자료를 이용하여 그림표를 그리고 이동원인을 정리 해석할 수 있다.	서술형
태도	4. 발전하는 제주도	쓰레기 처리 실태와 문제점을 알고 대책 세우기	우리 고장에서 나오는 쓰레기 처리 실태와 문제점을 알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보고서 관찰법

### 4학년 1학기 자연과 수행평가 내용

영역	관련단원	평가주제	평가목표	평가유형
운동과 에너지	1-(1) 빛의 직진	바늘구멍 사진기에 나타나는 물체의 상 변화	빛이 곧게 나아가는 성질을 알 수 있다.	실험실습
운동과 에너지	1-(2) 빛의 반사	빛이 반사되는 방향 알기	들어오는 빛과 반사되는 빛의 각도는 같다.	실험실습 보고서
지구	2-(1) 강	유수대 실험	흐르는 물이 지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실험실습
지구	2-(2) 바다	바다 밑 땅의 모양	바다 밑의 땅 모양을 알아내는 방법을 안다.	보고서 분석
물질	3-(2) 혼합물의 분리	혼합물 분리하기	소금과 모래의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다.	실험실습
물질	3-(2) 혼합물의 분리	혼합물 분리하기	철가루, 흑설탕, 밀가루의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다.	보고서 분석
생명	4-(1) 물 속의 작은 생물	개구리밥의 생김새	개구리밥의 생김새의 특징을 안다.	실험관찰 보고서
생명	4-(2) 땅 위의 작은 생물	술이끼와 우산이끼	술이끼와 우산이끼의 생김새와 두 이끼의 차이점을 말할 수 있다.	실험관찰

### 4학년 1학기 체육과 수행평가 내용

영역	관련단원	평가주제	평가목표	평가유형
리듬표현	3. 동물들과 친구되어	동물들을 흉내내어 걷기, 뛰기, 기어가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물들의 움직임을 흉내내어 걷기, 뛰기, 기어가기를 할 수 있다.	관찰 기록법
게임	5. 큰 공, 작은 공	공 던지고 받기 및 튀기기	공을 정확하게 던지고 안정되게 받을 수 있다.	관찰 기록법
기본운동	7. 신나는 달리기	몸의 모양을 다르게 하여 여러 방향으로 달리기	몸의 모양과 달리는 방향을 다양하게 하여 달리를 할 수 있다.	관찰 기록법
기계운동	12. 하늘 높이	안정된 자세로 뛰어내리기	높은 곳에서 뛰어 내릴 때 발 딛는 부위와 몸 모양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	관찰 기록법
체력	15. 줄넘기	방향과 빠르기를 다르게 하여 줄넘기	뛰는 방향과 빠르기를 다양하게 하여 줄넘기를 할 수 있다.	관찰 기록법
계절운동	16. 헤엄치기	물장구쳐서 앞으로 나아가기	물에서 팔과 다리로 물장구를 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관찰 기록법



### 4학년 1학기 음악과 수행평가 내용

영역	관련단원	평가주제	평가목표	평가유형
창작	2. 나물노래	노랫말 넣기	즉흥적으로 노랫말을 만들어 부를 수 있다.	관찰법
감상	대취타	대취타 감상하기	서양 행진곡과 비교하여 말할 수 있다.	질문지법
가창	7. 어머님은혜	노래 부르기	가사의 뜻을 살려 알맞은 셈여림으로 노래 부를 수 있다.	관찰법
기악	9. 고향땅	가락악기 연주	악상을 살려 가락악기로 연주할 수 있다.	관찰법

### 4학년 1학기 미술과 수행평가 내용

영역	관련단원	평가주제	평가목표	평가유형
감상	1. 미술과 생활	자연미 및 조형미 감상하기	생활 주변의 자연과 조형물을 감상하고 주제와 좋은 점을 이야기할 수 있다.	관찰법 질문지법
그리기	2. 느낌 나타내기	경험한 것 나타내기	생활 속에서 인상 깊게 느꼈던 일이나 생각을 자신 있고 풍부하게 나타낼 수 있다.	실기평가
조소	3. 상상하여 나타내기	상상의 세계 나타내기	상상한 것을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창의적인 조형 의식을 살려 만들 수 있다.	실기평가
꾸미기	5. 꾸미기와 만들기	색이 느낌을 생각하여 꾸미기	색의 성질을 알고 그 성질을 이용하여 아름다운 무늬를 창의적으로 꾸밀 수 있다.	실기평가
붓글씨	6. 붓글씨로 나타내기	판본체로 '높은 하늘' 쓰기	판본체의 자형을 익혀서 '높은 하늘'을 어울리게 쓸 수 있다.	실기평가